춘천시정소식지

봄내

10월호
2017 vol.321

가을추억을 싣고 달려보는 춘천

가을 대표하는 코스모스가 강촌레일바이크가 출발하는 김유정역 길을 따라 피었습니다.
옛 경춘선 철길을 따라 만들어진 레일바이크는 김유정역과 옛 강촌역 사이 약 8km 구간을 편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달리다보면 춘천의 가을 풍경과 북한강의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 3년연속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수상지



독서설문

1. 조선 문단의 문학서 중에서 감명 깊게 읽으신 것.
2. 외국 문학 중 감명 깊게 읽으신 것.
3. 한 달에 독서하시는 엽(頁·면)수.
4. 장서중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1. 홍길동전.
2. 제임스 죠이스의 「율리시-스」
3. 대중이 없습니다. 망녕이나면 한 삼천여엽(삼천여면), 또 망녕이나면 한 엽(면) 없습니다.
4. 더러 있든 걸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조광』 (1937.3), p.170

원문발췌 『원본 김유정 전집』 개정증보판, 전신재 편(강, 2012)

위의 독서설문이 실린 조광 1937년 3월호에는 〈사랑의 편지〉라는 공동제 글 모음 중의 하나로 「병상의 생각」이 실려 있다. 이 병상의 생각에는 유정의 홍길동전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예술가에게는 예술가다운 감흥이 있고 그 감흥은 표현을 목적으로 설레는 열정이 땋읍니다. 이 열정의 도가 강하면 강할스록 그 비례로 전달이 완숙하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이란 그 전달정도와 범위에 땋아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할겝니다. 〈중략〉 그들은 모든 구실이 다하였을 때 마즈막으로 새롭다는 문자를 번적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의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키가 어렵습니다. 새롭다는 문짜는 다만 시간과 공간의 전환 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 우리 인류사회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가져오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얼른 말하면 쪼이스의 「율리시스」 보다는 저 봉근시대의 소산이던 「홍길동전」이 훨적 뛰어나게 예술적 가치를 띠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정은 1935년 10월 『신아동』을 통해 허균의 홍길동전을 동화로 고쳐 만들면서 줄거리를 간결하게 가다듬은 「홍길동전」을 발표한 바 있다.

한눈에 본 춘천시 통계

2017년 8월 말 기준
+ – 는 전월 기준, 변동 수치임
chstat.chuncheon.go.kr

인구	가구	자동차	출생아
283,579명	117,856세대	126,515대	151명
+258	+167	+295	(2017년 누적출생아 1,169명)

Contents

02 **김유정 다시 읽기** – 독서설문
04 **드론으로 본 춘천** – 하늘에서 본 춘천 실레마을
06 **춘천은 지금** – 보육선도도시 특집 최동용 시장 인터뷰
10 **생활행정뉴스** – 춘천시립도서관 9월 9일 개관
14 **지역축제** – 춘천 축제로 즐거웠다
16 **우리 곁의 사회적경제 10** – 뚝방마켓
18 **김길소의 그 때 그 사건 10** – 강원대 종합대학 승격
22 **춘천의 기념비 10** – 자연보호헌장비
24 **자랑하고 싶어요 10** – 봉의중학교 만화동아리 '강카'
26 **다시 쓰는 지명유래 10** – 거두리
27 **봄내골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18** – 효자3동 김동진씨 사연
28 **손윤권의 패션 톡talk 톡talk** – 응답하라, 데님재킷 아니 청재킷!
29 **노재현의 한소끔** – 구음에 젖는 가을
30 **먼저 간 사람 –** 조각가 박희선 (1956 – 1997)
32 **우리아이가 태어났어요**
36 **봄내기업탐방 10 –** (주)한성정보시스템
38 **명예시민기자가 만난 우리 이웃**
45 **봄내인터뷰 –** 배우 김미아
46 **로맨틱 춘천 문화예술소식**
48 **기상청 소식**
49 **청탁금지법 사례 12**
50 **의회소식**
54 **봄내골소식**
59 **알림마당**

춘천시정 소식지 봄내는 월간 무료구독지입니다.
봄내는 http://www.chuncheon.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웹진 구독(무료)을 원하시면 ccc3@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이메일주소, 연락처 기재)

봄내 | 321호(2017년10월호) / 비매품
창간일 | 1993년 1월 25일
발행일 | 2017년 10월 1일
발행인 | 박종훈(춘천시 부시장)
편집위원장 | 한현주(춘천시 공보담당관)
기획 및 디자인 |
춘천시 공보담당관실 (033-250-3229)
상임위원 | 김정호, 이우진
인쇄 | 강원도민일보 사

춘천시정 소식지 봄내는 '파오인' 앱을 통해서도 구독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파오인'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하늘에서 본 춘천 실레마을



사진 8매를 파노라마 기법으로 합성 | 촬영일시 2017. 9. 11 | 미디스토리

실레마을은 '봄·봄' 과 '동백꽃' 의 작가 김유정의 고향이다.
김유정은 고단한 서울생활 중에 실레마을에 머물며 창작의 불꽃을 불태웠다.
실레마을길을 걷다 보면 작품에 등장하는 지명을 만날 수 있다.
김유정의 숨결이 남아있는 실레마을에 가을이 찾아오며 들녘이 노란 옷을 입어가고 있다.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춘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행정조직에 출산· 보육 등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 권익· 청년일자리 만들기에도 전력



춘천시는 지난해 말,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선도도시 구상을 밝히며 전국 최고의 보육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 우리 시의 보건, 복지, 기반시설, 기업 활동 등을 임신, 출산, 보육하기 좋은 여건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구상의 바탕에는 우리 시 인구가 만 65세 이상 인구는 14.7%에 이르지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를 이르는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168명(2016년 기준)이라는 초저출산 도시라는 위기가 있었다. 이에 시는 올 초부터 조직개편을 비롯해 관련 시책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

새로 지은 춘천시립(장난감· 어린이)도서관의 정식 개관을 4시간여 앞둔 9월 9일 오전, 시정소식지 봄내는 최동용 시장을 만나 보육선도도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자 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릴 일이지만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춘천을 전국 최고의 보육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이전부터 고민해 오셨다고 하는데,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1950년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이라 그땐 병원도 별로 없고 하니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있다 사망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너도나도 많이 낳아 잘 기르자 했는데 70년대부터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80년대엔 둘도 많다! 하는 캠페인까지 나왔어요. 그때는 인구 줄이기가 당장에 해결해야 할 목표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진 거죠.

이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면 중소 도시의 인구 기반이 무너져 30년 안에 우리나라 시· 군의 30%가 없어질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춘천이라는 도시도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유지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위기의식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는 있지만 신생아 인구는 썩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시 출산율이 강원도 내 18개 시· 군 중 12위에 속하는데, 그렇다면 출산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보니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하반기에는 이 시책을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구상 발표 전에 일본을 다녀온 것도 그 일환이군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오랫동안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젊은층 취업난 등의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먼저 어려움을 겪고 대안을 찾아내고 있는 도시의 사례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지난해 11월 초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후쿠이현 사바에시와 도야마현 도야마시를 다녀온 겁니다.

일본 중부의 후쿠이현은 일본 내 행복도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곳이랍니다. 사바에시는 인구 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안경테로 유명한 소도시인데 여기 특징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점이었어요.

인구 42만 명 정도가 사는 도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활용해 육아지원센터 만든 것을 보고 참 인상 깊었는데 그 안에서 운영되는 육아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만들기, 아버지 육아배움교실, 육아전용 24시간 상담창구 등이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도시를 다니며 가장 눈여겨본 건 시의 조직이었는데 행정 조직에 출산, 보육, 생애주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부서 조정을 새롭게 해서 보육선도도시에 걸맞은 행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부서장들과 고민 끝에 올 초 복지환경국 내에 출산보육과, 가족복지과, 장수건강과 등 전담부서를 신설· 조정하고 기존의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이름을 바꿔 시립도서관까지 포함해 평생교육원도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보육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마련해온 겁니다.

그렇게 1월이 되자마자 옛 캠프페이지 내 조종사숙소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는 현재 94군데 정도가 있으니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일 겁니다. 허나 임신에서 출산, 보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육아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장난감 교재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도 여기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놀이도 하고 엄마들이 쉴 수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그야말로 원스톱 보육지원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구

상 중입니다. 또 근처에 이미 아이들의 사계절 놀이터가 된 꿈자람 물정원도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특별교부세도 15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 또 다른 사업비들도 신청을 한 상태라 어느 정도 정부지원 규모가 잡히면 우리 시의 예산 지원도 그에 맞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내년 3월 전후에 바로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체감이 덜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일이지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면 몇 년 안에는 아이들이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놀러갈 만한 곳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춘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구상하고 있기도 한데, 젊은 부부와 영·유아들이 주로 거주하는 권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육아센터(가칭 꿈자람키즈파크)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기타 의견에 자연과 어우러진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던데. 안전하고 이동이 편리한 곳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엄마들이 아이 손 잡고 근처에 손쉽게 나갈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무엇보다 아이 손 잡고 갈 만 한 곳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 손잡고 언제든지 찾아갈 만한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놀이시설 그런 것만 두는 게 아니라 공동육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도서관, 체험, 마을특화프로그램 등도 두고 무엇보다 보육자들이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사실 맞벌이 가정의 아이 돌봄이 상당한 고충입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도 꽤 되는데.

일하느라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부부의 고충이 상당하지요. 또 어린이집 교사들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24시간 365일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해 설치 후 그런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직원들과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 분위기가 함께 맞물려 나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시가 보육선도도시로 가려는 첫 삽을 떴으니 앞으로 점차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황혼 육아도 늘고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겠지만 손주 돌봄 고충도 상당합니다.

일하는 자녀들이 아무래도 그나마 가장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자기 부모겠지요. 그래도 서로 서운한 점이 생길 수도 있는 게 가족일 겁니다.

우리 시가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황혼육아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게 시니어 맘 서포터즈라는 건데 지금 남부노인복

지관과 위스타트 춘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시대가 다르니 아이 키우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겠지요. 그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요즘 식으로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분들 얘길 들어보면 무엇보다 고충이 손주들을 키우면서 방식이 달라 자녀와 갈등이 생겨 맘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로 오고 우울증으로 오고, 요즘 시대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 다른 복지 분야, 이를테면 어르신 복지나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 복지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이 흔들림 없이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만 봐도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를 위해 2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주·단기 보호소와 직업재활시설 등을 신설 확충하려고 투자를 점차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분야도 올 4월 거두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열었고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1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가 학교 밖 지원센터도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년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청년지원조례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청년층까지도 우리가 보육선도도시 구상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지원된다 하여 우리의 체감지수가 확 오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육선도도시는 시 차원의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예를 들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 부분의 해법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자 해서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도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캠페인도 주저 없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는 올 7월부터 가족· 자녀의 소중함 그것으로 얻는 행복감 그런 걸 집중 홍보하고 있기는 한데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행위가 존중받는 게 우선일겁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업에 있어서는 여성 고용 비율이 높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가족친화형 인증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여성들이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상하는 보육선도도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춘천의 보육선도도시는 지자체가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 청년일자리와 창업, 결혼 후 자리를 잡기까지 필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춘천시의 의지입니다.

이런 보육지원은 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해 시민 누구에게나 시행되어야 할 시대적 가치이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지역의 미래입니다. 보육선진 환경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한 가정은 우리 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행 **이우진** 상임위원

춘천시립도서관 9월 9일 개관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인기 최고
개관 첫 주말 1만 3,800여명 이용





춘천 석사동에 새롭게 문을 연 춘천시립도서관이 지난 9월 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춘천시가 국비 등 200억원을 들여 지난 2015년 착공해 지상 3층 연면적 7,700㎡ 규모로 1층은 어린이 전용공간으로 장난감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마련됐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면적 512㎡)의 장난감도서관에 645종 1,053개의 장난감이 구비되었다. 4만4,500여권의 도서가 어린도서관(면적 704㎡)에 자리잡고 있다. 2층은 제1자료실과 강당을 겸한 시청각실, 3층은 제2자료실과 정보검색실 등이 꾸며졌다. 제1자료실과 제2자료실은 총 14만 1,000여권의 장서가 갖춰졌다. 도서관 주변으로 넉넉한 휴식공간과 숲길을 마련해 산책과 사색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과 어린도서관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개관이후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개관 첫 주말에만 1만 3,80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해 삼천동시절 1일 평균이용객 600여명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장남감·어린이도서관에 이용자가 몰리며 운영 인력을 계획인원보다 늘려 배치했으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마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어린이도서관로 발길이 이어지며 200석 규모의 열람석이 빈자리를 찾기 힘들다. 2층과 3층의 일반자료실도 청소년과 대학생, 성인들로 240여석이 꽉 차고 있다.

홍순연 시립도서관장은 "개관 이후 한 달여 운영상황을 살펴봐야겠으나 현 이용객 규모가 지속되면 안전, 시설, 안내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충원이 불가피 할 것" 이라고 했다.

〈춘천시립도서관 장난감·어린이도서관 245-5102〉

춘천 아기사랑 가족사랑 전국사진 공모전

426점 응시… 22일 시상식 전시회도 진행
대상 '행복한 시간' 김선미 씨



금상 '행복한 시간' (김선미)

'2017 춘천 아기사랑 가족사랑 전국사진 공모전' 에서 김선미(용인시) 씨의 '행복한 시간' 이 금상에 뽑혔다.

이번 공모전은 춘천시가 보육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임신,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실시한 것으로 전국에서 426점이 응모되었다.

입상작은 △금상=행복한 시간(김선미, 용인시) △은상=사랑해(김흥식, 대구광역시) △동상=우리는 친구(정숙희, 춘천시), 소중한 우리아기(최문정, 홍성군) △가작=사랑해(박숙지, 대구광역시), 어느덧 우리도 아빠가 되었네(박신혜, 춘천시), 휴식(홍명이, 철원군)이다.

이외에 100점의 작품이 입선했다.

시상식은 9월 22일 오후 2시 아트플라자 갤러리에서 있었다.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 가작 30만원, 입선 5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입상작은 9월 22~26일 아트플라자 갤러리, 10월 14일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이어 11~12월 시립도서관, 청소년도서관, 군부대,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에서 순회 전시된다.

〈출산보육과 ☎250-4784〉

은상 '사랑해' (김흥식)



동상 '우리는 친구' (정숙희)





동상 '소중한 우리아기' (최문정)

춘천북부노인복지관 오는 11월 개관

강북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복지공간

강북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복지공간이 될 북부노인복지관이 예정대로 11월 문을 연다.

지난해 7월 신사우동 소양초등학교와 공병부대 사이 길가 부지에 착공한 북부노인복지관은 현재 98%의 공정률 속에 마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동면 동부노인복지관(만천리), 온의동 남부노인복지관에 이은 세 번째 공공 노인복지 종합운영 시설이다.

7,100여㎡ 부지에 장애물 없는 건물로 설계된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850㎡ 규모다.

식당, 체력단련실, 당구, 탁구, 바둑, 장기, 서예 등 여러 취미활동 공간, 물리치료실, 강당 등이 배치된다. 야외에는 게이트볼장이 있다.

시는 농촌지역 우선 배려와 시내에 비해 열악한 도농복합 지역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을 시작했다.

춘천시는 강원도에서 3개의 노인복지관 시설을 갖춘 도시가 되었다.

〈장수건강과 ☎250-3670〉



치매안심센터 내년 상반기에 문 연다

치매 초기증상 어르신들에게 전문 서비스
석사동 옛 춘천중앙병원 리모델링 3~4층에 설치

치매 초기 어르신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춘천시는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시 직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국·도비 11억원을 포함, 14억원을 들여 연내 착공, 내년 상반기 안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이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 책임제 연계 사업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인지기능 저하 어르신 대상 치매 진단검사, 치매 관리 대상자 등록, 치매 발견 초기 어르신의 증상 악화를 늦추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교육, 낮 시간 보호 등이다. 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정, 일대일로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정보교환,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센터는 석사동 옛 춘천중앙병원을 개·보수해 3~4층에 마련한다.

주 시설은 검진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등이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치매안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담사례 관리사, 프로그램 운영 인력 등 20여명을 채용한다. 팀을 꾸리고 전담사례관리사, 프로그램인력을 포함, 25명의 인력을 배치해 직접 운영한다.

현재 지역 내 치매 어르신은 4,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치매상담센터 등록자는 1,500여명이다.

〈장수건강과 ☎250-4004〉

춘천 바이오제품 베트남에 1,180만 달러 수출 성과

현장 판촉전 성황리에 끝나 ... 최동용 시장 진두지휘 큰 성공

춘천시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춘천 바이오제품의 베트남 판촉전 행사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하였다.

지난해부터 우수한 바이오제품의 베트남 진출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베트남의 대형 유통회사인 리엔호아 그룹과 접촉하여 식품, 화장품, 환경 및 의료기기 등 춘천지역의 우수한 바이오기업 18개사의 제품에 대해 베트남 현지 판촉전을 준비해 왔다.

특히, 이번 베트남 판촉전은 최동용 춘천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많은 성과를 얻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막식에는 전 베트남 부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300여명의 현지 바이어가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베트남 기업과 춘천기업 간 18건의 수출입 MOU체결이 이뤄졌다.

행사기간 3일 동안 총 163회에 걸친 비즈니스 상담 및 현장판매를 통해 좋은 성과가 있었다. 수출계약이 ㈜바이쥬 등에서 18만5,000달러, 리엔호아 그룹에서 ㈜다럼앤바이오, ㈜해송KNS, 그린솔루션스, 리제론, 바이쥬 등 5개사와 500만 달러의 구매의향서에 서명하였다. 세바바이오텍은 현지 한인기업과 30만 달러의 구매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외에 13개사도 632만 달러의 구매의향서가 접수되는 등 총 1,180만 달러의 수출이 가시화되는 성과를 나타냈다.

춘천시와 춘천바이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우수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밴째성과 공동협력 MOU도 체결했다. 밴째성 측은 "금년 12월 개최되는 '베트남 최대의 메콩강 축제' 에 춘천시 관광 홍보와 바이오제품 판매 부스를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 참가업체 : 바이쥬, 해송, 리제론, 그린솔루션스, 다럼앤바이오, 비피도, 휴젤파마, 세바바이오텍, 라이프투게더, 천연애공방, 팜크로스, 메디언스, 프론트바이오, 다음푸드앤케어, 에코비전, 두산에코비즈넷, 바디텍메드, 이뮨메드

〈전략산업과 ☎250-3953〉



춘천, 축제로 즐거웠다

글·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8월과 9월 축제와 행사가 줄이어 개최돼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8월25일 2017 춘천레저대회를 시작으로 2017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 춘천시민 생활체육축전, 2017 춘천캠핑페스티벌, 2017 춘천토이페스티벌, 2017 춘천애니타운페스티벌, 춘천가족음악축제, 소양강문화제가 줄줄이 열렸다.

특히 2017 춘천캠핑페스티벌과 2017 춘천토이페스티벌은 시의 가족 체험관광 육성과 보육선도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2017 춘천토이페스티벌

국내 최대 규모의 장난감 축제인 '2017 춘천토이페스티벌'이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봄내체육관과 꿈자람물정원,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에서 열렸다. 시에 따르면 4일 동안 6만 5,000여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2017 춘천캠핑페스티벌

'2017 춘천캠핑페스티벌'이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면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글램핑장에서 열렸다. 시에 따르면 축제기간 캠핑 숙박객 800여명, 당일 일반 방문객 600여명 등 총 1,400여명이 찾았다. 의암호 수변 2만7,000여㎡의 축제장에 상시 운영되고 있는 글램핑 24개동, 오토캠핑 10개동 외에 캐러밴 10대, 자유캠핑시설이 마련됐다. 축제장에서는 가족캠핑요리대회, 가족과 함께 텐트 빨리 치기, 열기구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다.



2017 춘천레저대회

'2017 춘천레저대회' 가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삼천동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액션스포츠챔피언십, 국제댄스연맹(IDO)코리아댄스컵대회, 전국인라인슬라럼대회, 코리아수상스포츠오픈대회, 드론레이싱대회, 온로드(ON-ROAD)그랑프리대회, 전국스포츠크라이밍대회, 전국아이스하키대회 등 8개 종목이 치러졌다. 시와 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선수단 2,000여명을 포함, 2만 7,000여명이 방문했다.



2017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올해로 통합 개최 10주년을 맞이한 '2017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가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춘천역 앞 옛 캠프페이지 일원에서 열렸다. 시와 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축제기간동안 27만여명이 찾았다.



춘천시민 생활체육대축전

춘천시 생활체육 동호인의 한마당 축제인 '춘천시민 생활체육대축전' 이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렸다. 춘천시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축구, 족구, 빙상, 탁구, 풋살, 검도, 배구, 농구, 수영,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궁도, 야구, 패러글라이딩, 볼링, 국학기공, 배드민턴, 볼링, 댄스스포츠, 에어로빅스체조, 합기도, 바둑, 롤러스포츠, 당구, 파크골프 등 25개 종목에 1만 2,000여명이 참가했다.



2017 춘천애니타운페스티벌

춘천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축제인 '2017 애니타운페스티벌' 이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일원에서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렸다. 시에 따르면 1만 2,000여명이 축제장을 다녀갔다. 이번 축제는 '애니메이션은 내 친구' 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회와 공연, 체험, 코스프레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펼쳐졌다.



춘천가족음악축제

'춘천가족음악축제' 가 9월 16일과 9월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공지천 의암공원 내 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16일은 전인권밴드, 버즈, 소향, 에디킴, 슈퍼키드 등, 17일은 윤수일 밴드, 조성모, 백아연, 정동하, 장미여관, 정진운밴드, 커머드라운드 등이 공연을 펼쳤다.



소양강문화제

춘천의 향토 축제인 소양강문화제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공지천 의암공원과 송암스포츠타운, 봉의산 순의비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제례, 가요제, 체육대회, 문예행사, 시민동아리공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열렸다.



현재 뚝방마켓은 번개야시장과 협력해 매주 토요일마다 담벼락마켓을,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협력해 봄내가자란다 시장을 열고 있다. 뚝방마켓 창안자인 김은석 씨는 다시 단독으로 문을 열 날을 꿈꾸고 있다. 왼쪽 아래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마켓 셀러 김현재, 유하나, 광고발전소 조숙정 본부장, 김은석 시장기획자, 박찬재 시민자원봉사자, 이재욱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김상진 사무국장. 문의 253-0957

우리동네 대표! 시민마켓을 꿈꾸며

글 **이우진** 상임위원 / 사진 **강두환**(자몽사진연구소장)

우연이었다. 그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 이 지역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나온 아이디어였을 뿐. 김은석(44) 시장기획자는 한번 열고 말 이벤트로만 생각했지 지금처럼 판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래도 '여기 뚝방에서 마켓을 열면 어떨까요' 라며 동네 부녀회와 이장님들, 상인들을 만나며 의견을 구하러 다녔다. 틈틈이 '농사짓고 있는 작물도 가지고 나와서 팔아보시겠어요' 라며 참여도 꾀했다. 아름다운 마켓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공예 작가들을 수소문해 아기자기한 작품을 모았고 사회적 기업 물품 등 지역물산도 한데 모아 2015년 7월 우두동 강둑에서 "뚝방마켓" 을 시작했다.

> 이런 마켓을 노점행위로 볼 것인지 문화예술 행위로 볼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 처음 뚝방마켓이 열렸던 소양1교 둑방은 하천법에 저촉되고 공지천 등은 공원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첫 회 공식집계 2,500명. 4시간동안 문을 연 뚝방마켓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였다. 예상외의 반응이었다. 다음 달 같은 장소에서 한 번 더 연 뒤 9월에는 소양강처녀상 앞으로 장소를 바꿔 11월까지 열었다. 그간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봄내누리 벼룩시장이나 쿱박스의 소풍마켓, 비블로의 감성마켓 등이 있긴 했어도 순간 이만한 반응은 놀라울 정도였다. '아, 사람들이 이런 마켓을 기다렸구나' 싶었다.

뚝방마켓 정착을 위한 노력

제대로 판을 짜고 싶었다. 참여자들의 반응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 "이런 마켓을 노점행위로 볼 것인지 문화예술행위로 볼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 처음 뚝방마켓이 열렸던 소양1교 둑방은 하천법에 저촉되고 공지천 등은 공원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정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어 지난해 말 문을 연 번개야시장과 조합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담벼락마켓을 열고 있고 동면의 오랫동안 문 닫은 주유소를 다듬어 오픈한 공간과 결합해 엉뚱한 주유소×뚝방마켓을 잠깐 운영했다. 두 달 전부터는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봄내가 자란다 시장과 약사천 부근에서 함께하고 있다. 지금까지 380여 팀 정도가 참여했다. 그래도 뚝방마켓이 진정한 뚝방에서 다시 열릴 날만을 기다린다는 기획자와 셀러들. 김은석 씨는 "그러기 위해서 현재 뚝방마켓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고 말했다.

동네 대표마켓을 꿈꾸다

그야말로 플리마켓 전성시대. 8,9월에만 18번의 플리마켓(벼룩시장)이 열렸다. 통합의 필요성은 없을까. 자연스럽게 시민마켓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안 그래도 다양한 형태의 플리마켓들이 춘천 곳곳에서 열리는데 지난 봄 부터 춘천시민마켓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시민마켓은 프리마켓, 플리마켓, 마을장터, 전통시장 내 매대 운영자 등 다양한 개성의 마켓들을 포괄하는데 시민 스스로 만들고, 나누고, 즐기는 그런 마켓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지원, 그리고 개성 강한 각 마켓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바탕이 되어야 실현 가능한 마켓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두동에서 나고 자랐고 둑방에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어울려 보낸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마켓. 광고라는 본업도 뒤로하고 시장기획으로 뛰어든 이와 그와 함께 뚝방마켓 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셀러(판매자)들의 정성과 에너지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지역밀착형' 기획이다.

마지막으로 뚝방마켓의 미래를 물었다. "셀러와 기획자 참가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핸드메이드 상품 전문 유통 조직 또는 상점을 만들고 싶어요" 조심스러워하긴 했지만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된 듯 했다.





김길소의
그 때 그 사건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과 개발 부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이뤄진 이 격랑의 시기에 조용한 '봄의 고장' 춘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필자는 지난 1970년부터 40여 년간 일선 기자와 언론인으로 춘천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과 변화의 물결을 지켜 본 토박이 언론인이다. 지금은 까맣게 잊혀져 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그의 글과 당시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을 통해 그때를 기억하고 숨은 일화와 뒷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⑩ 강원대 종합대학 승격



강원대학교 종합대 승격으로 효자골에 웅비의 나래 펴다

봄내골 지성의 상징인 강원대학교(이하 강원대)가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았다.
굴곡진 세월 속에 도내 유일의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 웅비의 나래를 펼쳐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온 지도 벌써 40년에 가깝다.
험난한 파고 속에서 올해 고희를 맞은 강원대는 "기필코 개교 100주년에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자"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 **김길소** 편집위원 사진 **강원일보사**

1947년 농업대학으로 개교

강원대는 광복과 정부 수립 등으로 격동기였던 시기에 강원도립춘천농업대학(1947년 개교)으로 태어났다.

농학과를 기반으로 농촌지도자를 양성하다 임학과와 축산학과를 신설하면서 교명을 춘천농과대학(1951년)으로 바꾸고 국립대학 지정(1953년)과 함께 학과를 늘려나갔다.

그리고 학부 운영과 나라에서 당장 필요한 중등교원과 농업토목기술자 등을 사회에 배출하는 인재 양성소 역할을 병행했었다. 이 무렵 춘천시의 인구는 도·농 통합 이전이어서 12만 명 남짓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도청 소재지요, 국가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던 터라 성심여대를 비롯해 다른 지역보다 대학 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춘천농대가 초창기를 거쳐 대학의 기틀을 다져 강원대로 교명을 교체(1970년)해 내실을 다지고 급기야 종합대학으로 승격(1978년)하면서 도약기를 맞았다. 해외에서 유학한 우수인재들을 교수진으로 초빙하고 다양한 연구소를 설치하는 한편 의과대학까지 신설(1997년),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을 늘리면서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이때부터 봄내골을 가리켜 "교육의 도시"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실제로 봄내골은 인구 대비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베스트셀러나 좋은 영화가 나오면 별다른 선전이 없어도 잘 팔리고 많이 보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 정평이 나 있어 지적 수준이 높은 곳으로 꼽혔다.

이는 지역에 내세울 만한 뚜렷한 산물과 산업이 없어 종합대학 승격을 계기로 "교육도시 육성을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애향심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1978년 종합대 승격 후 승승장구

종합대학 승격으로 날개를 단 강원대의 눈부신 발전은 멈출 줄 몰랐다. 그 이면에는 초대와 2, 3대 총장을 맡았던 이민재 이상주 전 총장의 공로가 컸다. 그 후 현 총장인 김헌영 총장에 이르기 까지 40년 동안 대학의 수장(표 참조)들과 지역사회가 쏟았던 열정과 노력이 담겨있다.

강원대는 이제 전국의 어느 국립대학 못지않은 매머드 캠퍼스를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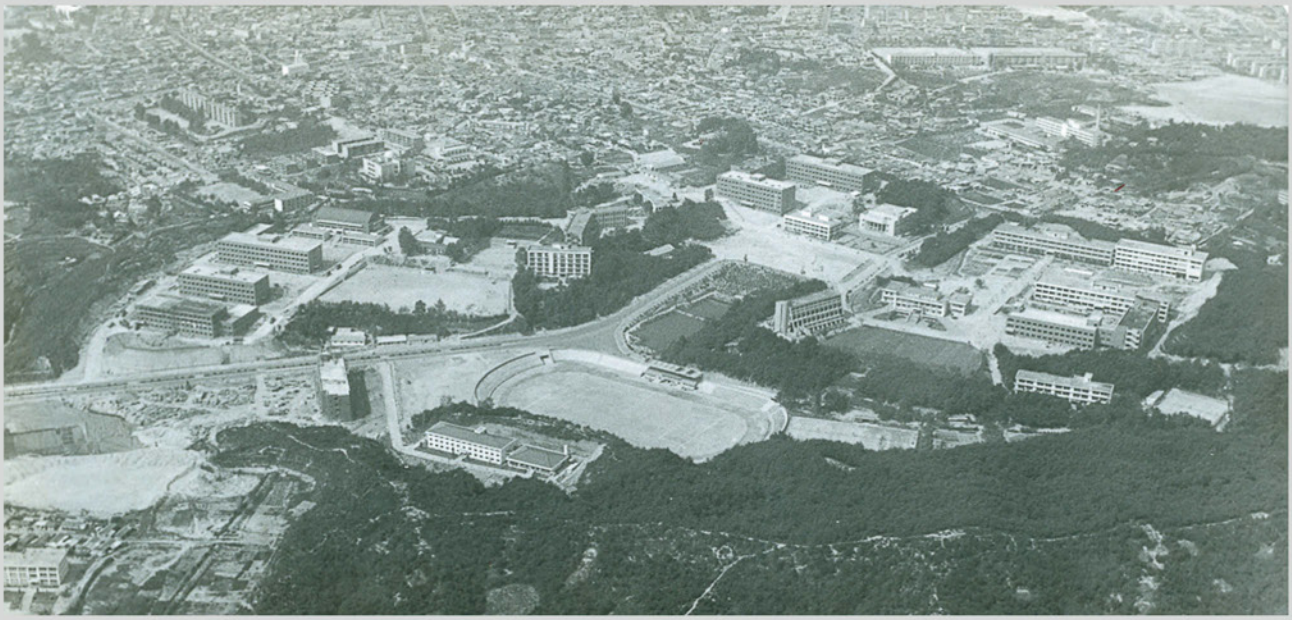
2016년 강원대학교 통계연보의 지적현황에서 살펴본 보유 대지만 모두 154만9,060㎡(춘천캠퍼스 96만5,589㎡ 삼척캠퍼스 58만3,471㎡)의 규모이다. 이 넓은 부지 안에 45개 부속시설과 55개 연구소를 운영, 학문 간의 균형 잡힌 연구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아래) 1986년 강원대학교 농과대학 전경이다. 강원대학교는 1947년 강원도립춘천농업대학으로 개교해 1951년 춘천농과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53년 국립대학 지정과 함께 학과를 늘려나갔다.

(오른쪽) 1978년 강원대학교 종합대학 승격을 기념한 현판식.







1981년 9월 하늘에서 본 강원대학교 전경이다.

박사와 석사 학사 현황을 보더라도 춘천캠퍼스가 박사과정 79개 학과에 12개 협동과정, 석사과정이 99개 학과에 14개 협동과정이 있다.

그리고 삼척캠퍼스가 박사과정 12개 학과에 1개 협동과정, 석사과정 24개 학과에 1개 협동과정을 두고 있다. 여타 지역의 대학과 견줘 손색이 없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탐구하고 있다.

교직원 숫자만 춘천캠퍼스가 1,586명(교수 992명 조교 179명 직원 415명), 삼척캠퍼스가 381명(교수 209명 조교 69명 직원 103명)에 이른다.

재학생과 졸업생 숫자도 엄청나다.

춘천캠퍼스에 2만 2,949명(학부 2만169명 대학원 석사과정 2,037명 박사과정 744명)이 재학 중이고 삼척캠퍼스에 6,227명(학부 5,950명 대학원 석사과정 201명 박사과정 76명)이 재학 중이다.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재학생이 진리를 탐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양 캠퍼스의 석·박사과정을 포함한 졸업생(춘천 13만4,366명 삼척 4만7,626명) 숫자만 벌써 18만 명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지난 2월 이필현 회장 체제를 출범시킨 강원대 총동창회는 조직을 재정비, 재원을 확충하고 네트워크화를 시도해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박관희 사무총장은 "현재 춘천과 삼척으로 나뉘어 있는 동창회의 통합과 활성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나로 뭉친 동창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선순환

대학은 이제 단순히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문의 요람만이 아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고장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막중한 위상과 역할을 지닌다. 강원대 교수들이 여러 각도에서 연구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엄청난 지역 소득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학술연구 활동과 각종 사업비 투자에다 재학생들의 월세 용돈 식비 등을 모두 합치면 연 수조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웬만한 시·군 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 규모에 버금간다.

의학과와 간호학과를 만들어 의과대학을 신설(1997년)한 후 강원대학교 병원(현 원장 주진형·2000년 5월 설립)으로 탈바꿈해 의료 시혜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암노인센터와 어린이병원 등을 운영하고 진료과목이 모두 34개로 전문화되어 있어 환자의 역외 유출은 물론 고객만족도 A등급의 대학병원으로 공공의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까지 신설, 향토출신 법조인 양성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다.

이 밖에 많은 교수들이 강원도와 춘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와 지역단체에 참여, 두뇌노릇을 하고 있어 직·간접적인 지역성장 유발효과를 망라하면 그 역할이 더욱 크다.

이제는 과감한 변화 필요한 때

강원대가 단기간 이뤄놓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일진월보(日進月步)라고 일컫는다.

날과 달마다 끊임없이 달라지는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과 지역사회 앞에 놓인 하드웨어적인 현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녹록치만은 않다.

국가차원의 대학 적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점점 경쟁은 고사하고 정원보다 고교졸업생이 적어지는 추세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다 서울·경기 등 외지 출신 학생들이 절



2009년 삼척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전경.
강원대학교는 삼척대학교(삼척 ·도계캠퍼스)와 2006년 3월에 통합했다.



1997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후 춘천의료원(공식명칭은 지방공사강원도 춘천의료원)을 2000년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개원했다.

반을 넘어서고 재학생 가운데 타 대학 편입생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교 출신 교수들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덩달아 주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이 사회를 휘몰아치고 있는 무한 경쟁의 파고에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해마다 경쟁지표를 높여나가는 바람에 한시적이지만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아픔까지 겪어야 했었다. 학제간의 높은 벽과 전공의 굳은 틀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리나라 대학 공통의 장애요인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산학협력을 이끌어 낼 성장전망이 밝은 지역산업도 흔치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대학 개혁의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이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손잡고 경축해야 할 빅 이벤트인 개교 70주년 행사마저 어수선한 가운데 엉겁결에 흘려보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대는 지난해 6월 김헌영 제11대 총장 체제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그 후 대학 구성원 모두가 "영광의 100주년을 향해 매진하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오픈캠퍼스(열린대학)이다. 대학 안에 둘레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몸과 마음을 다잡아 나가고 있다.

이런 변화의 성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산업과의 선순환 구조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100주년 청사진" 완성에 기대를 걸게 한다. 고리타분한 과거 상아탑의 개념에 안주해서는 지금 눈앞에 닥친 난제들을 이겨내기 힘들다. 지역사회+대학+산업사회가 함께 융합, 창조적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은 과감한 혁신과 개혁만이 새로운 미래의 열쇠요, 해답이 되고 있다.

강원도립춘천농업대학(1947) 춘천농과대학(1951)			강원대학교(종합대승격 · 1978)		
초대 학장	함인섭	1949년 8월~	초대총장	이민재	1978년 3월~
2대학장	함인섭	1957년 4월~	2대총장	이상주	1982년 1월~
3대학장	정계완	1960년 8월~	3대총장	이상주	1986년 1월~
4대학장	함인섭	1962년 8월~	4대총장	이춘근	1988년 7월~
5대학장	함인섭	1968년 1월~	25대총장	문선재	1992년 7월~
6대학장	함인섭	1972년 1월~	6대총장	하서현	1996년 7월~
7대학장	최종렬	1972년 9월~	7대총장	박용수	2000년 7월~
8대학장	최종렬	1976년 9월~	8대총장	최현섭	2004년 8월~
			9대총장	권영중	2008년 8월~
			10대총장	신승호	2012년 8월~
			11대총장	김헌영	2016년 6월~



김길소(편집위원 ·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
춘천 태생으로 1970년 강원일보사에 입사, 편집국에서 강원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취재했다. 편집국장, 논설주간, 상무, 전무이사를 지낸 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언론사와 피해자의 중재 역할을 해 왔다. 현재는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당시 내무부(장관 김치열)가 주관, 100 여 명으로 구성된 자연보호위원회 내에서 11명으로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초안을 작성한 뒤 수차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헌장이다. 춘천시에는 1980년 8월 15일에 건립되었다. 삼천동 춘천지구전적기념관 앞에 세워져있다.

시월, 다시 한 번 자연보호헌장을 생각하다

글·사진 **심창섭** 편집위원

10월은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달이다. 공지천으로 달려가 춘천지구전적기념관 앞마당에 있는 자연보호헌장비 앞에 섰다. 벌거벗은 건장한 청년 두 사람이 양편에서 두 손으로 커다란 바윗돌을 쳐들고 서있는 조형물이다. 1980년에 세워졌으니 벌써 37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1970년대만 해도 도시 골목은 물론 유원지에도 쓰레기가 넘쳐났다. 깨진 병과 비닐, 그리고 어디나 담배꽁초가 널려있고 구석구석 쌓여 악취가 진동했었다. 그랬던 것이 1978년 10월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하고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라고 시작되는 전문 624자의 자연보호헌장은 우리의 인식과 무분별한 자연훼손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국민적 각성 촉구와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의 사명과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당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춘천시에서도 1980년 8월 1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를 기념하고 취지를 알리고자 이곳에 조형물을 세웠다. 전 국민운동으로 쓰레기 줍기, 안 버리기, 되가져오기 등을 실천하며 우리의 주변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자연보호에 대한 우리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우리 고장 산과 들 여기저기에

설치됐던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입간판의 익숙한 구호도 떠오른다. 그 당시에는 자연보호를 위해 관공서, 학교, 군부대 등에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게 하나씩을 들고 쓰레기를 마대에 채우던 시기도 있었다.

자연보호헌장비가 자리한 이곳에서 춘천을 바라보는 맛은 정말 일품이다. 너르고 푸른 의암호 건너편에 신기루처럼 떠오른 춘천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곤 한다.

주차장 한편에 퇴역장군처럼 전시된 전차는 한국전쟁의 상흔(傷痕)을 이야기하지만, 주말이면 시끌시끌하던 결혼식 뒤풀이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참 짓궂기도 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에게 조형물의 청년 심벌을 만지게 하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신랑 친구들이 전차 포신에 신랑을 매달고 발바닥을 때리며 짓궂은 결혼식 뒤풀이를 하기도 했다. 신부를 차량 트렁크에 태운 채 신랑을 매달고 시내를 달리던 고된 통과의례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진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39주년과 헌장 선포의 달을 맞아 한번쯤은 아이들에게 이 운동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알려주자. 쾌적한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1994년 10월 5일 자연보호춘천시협의회가 주최한 자연보호헌장 선포 16주년 기념행사를 끝내고 공지천 자연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 출처 강원일보

자연보호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농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 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 5일



심창섭(편집위원 · 춘천문인협회장)
춘천에서 나고 자랐다. 춘천시청에서 문화재 업무를 전담하다 2006년 정년퇴직. 사라져 가는 춘천의 풍경과 민속 문화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기록 중이다. 포토에세이 《때론 그리움이 그립다》를 썼다.

자랑하고 싶어요 ⑩

봉의중학교 만화동아리 '강카'



"만화 그리는 이 시간, 정말 좋아요"

수업계획부터 모든 활동 스스로 운영하는 동아리



점심식사를 하고 동아리 회원들이 페이스페인팅 작업을 하고 있다.

9월 1일 오후 12시 50분.

봉의중학교(교장 홍옥경) 운동장엔 점심식사를 후딱 끝낸 소년들의 축구놀이가 한창이다. 딱딱한 수업 후 맞은 꿀맛 같은 자유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는 시간. 복도를 가로질러 도착한 미술실에선 각자의 작은 손등에 예쁜 문양을 그려 넣는 손길들로 분주하다. 신나는 점심시간의 여유를 그림 그리는 일과 맞바꾼 아이들. '강카' 회원들은 1시 30분에 울리는 수업종이 야속하기만 하다.

30여 년 이어온 동아리

봉의중학교 만화동아리는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는 자생동아리다. 30여 년 동안 선배들이 이어온 전통을 계속해서 물림하고 있다. 카페처럼 자유롭게 와서 학업에 지친 머리를 그림 그리며 쉬어보자는 의미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동아리가 되고 싶은 염원을 담아 이름도 '강카'로 지었다.



동아리 회원들이 자신의 작품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앞줄 왼쪽부터 양채영(1학년), 신유진, 이세빈, 박정인, 이예지, 구예은(이상 3학년)
뒷줄 왼쪽부터 정지원, 홍효선, 신은경, 김윤아, 한겨레, 김예아(이상 1학년), 윤수영, 김민지, 황가영, 최지윤, 정지영 (이상 3학년)

윤재복 지도교사는 10여 년 동안을 만화동아리와 함께 해왔다.

"예전엔 재료도 각자 준비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지원이 늘었어요. 사실 학생들끼리 다 알아서 하고 교사는 지켜만 볼 뿐입니다. 동아리 장을 중심으로 아이들 스스로 수업계획을 짜고 공모전이나 행사 준비를 하죠."

윤 교사는 소중한 전통을 훌륭하게 이어가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학교 축제기간, 체육대회 통해 빛나는 솜씨 선봬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원은 총 20명. 이들은 월, 수,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30분 동안 모여 그림을 그리고 서로 조언도 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 만화동아리에 들어오고 싶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학기 초 엄격(?)한 그림오디션을 통과해야만 동아리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심사도 선생님의 개입 없이 동아리 임원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동아리 식구가 구성되면 한자리에 모여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의견을 조율한 후 그것을 토대로 일정을 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선배가 1:1 멘토를 해주며 동아리를 이끌어간다. 일주일에 세 번, 30분의 점심시간으로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아이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종종 모여 활동한다. 이런 열심에 학교 측은 해마다 12월에 열리는 축제기간에 특별전시공간을 마련해 끼를 마음껏 선보이도록 응원해주고 있다. 작년엔 책갈피와 배지 등 멋진 팬사용품도 만들어 판매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세빈(3년·부기장)양은 "5월 체육대회 땐 친구들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했었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웃고 즐거워하니까 보람도 느끼고 참 재밌었어요"라며 상큼하게 웃었다.

실력 있는 여류화가로 이름 날리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열심히 하다 보니 작년 9월에 열린 학생종합실기대회에선 2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그때 수채화를 그렸는데 우수상을 받았어요. 제가 워낙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1학년 때부터 만화동아리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한 대가를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서양화를 전공해서 실력 있는 여류화가로 이름을 날리고 싶어요."

동아리장을 맡고 있는 박정임(3년)양의 당찬 포부에 옆에 있던 윤재복 지도교사가 말한다.

"나도 고등학교 때 전시회에서 만난 산뜻한 수채화의 매력에 빠져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교사가 됐지. 넌 감각과 지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꼭 성공할거야."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시신의 머리를 잘라라! 거두리



효자동 벽화마을에 그려져 있는 효자 반희언

우리 사회는 효(孝)에 대하여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효를 구시대 산물로 완전 폐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극단적 시각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가정만이 지니고 있는 세대 간의 인간다운 아름다운 행위로 보는 전통적 시각이 있다. 효(孝)라는 한자를 보면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나이든 분(老 : 허리를 굽혀 국자로 요리를 하는 모습이 늙을 노(老) 자의 원뜻)을 자식(子)이 받들고 있다. 농경사회로 접어들고서 인류는 수많은 요리를 하게 되었다. 도시가 생겨나고 요리사는 높은 지위를 얻었다. 요리사는 경험이 많고 다양한 요리를 하는 사람이 더 큰 대접을 받았다. 옛날 요리사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 직업이었기에 그 직업을 자식에게 전수해주어 신분을 연장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효라고 함은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어나가는 것이었다. 결국 효라고 함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잘 받들어나감이다. 춘천의 대표적 효자로는 반희언(潘希彦)을 꼽을 수 있다. 반희언은 임진왜란 당시 장수로 활약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병이 들어 회복할 기미가 없었다. 이에 반희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약을 구하여 잡숫게 하였지만 효험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대룡산 어느 곳으로 가서 시신의 머리를 잘라다 과서드리면 나을 것이라고 하였다.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그 장소로 가보았더니 정말 시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반희언은 가운데 놓여 있던 시신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와서 과서드리니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반희언은 그날로 자신이 시신의 머리를 자른 곳으로 다시 가보았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시신 대신에 산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운데 산삼만이 머리 부분이 잘린 채 놓여 있었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반희언의 효성을 임금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 정려문(旌閭門)이 내려지고 지금의 우체국 자리(효자동)에 효자각을 세웠다. 이후 반희언이 시신의 머리를 자른 곳을 거두리(去頭里)라고 불렀다. 거(去)자는 자르다와 베다는 뜻이 있고, 두(頭)자는 머리라는 뜻이니, 거두(去頭)는 머리를 자르다는 뜻이 되는데, 이후 한자를 바꾸어 거두리(擧頭里)라고 하였다. 이는 대룡산이 시작되는 곳이란 의미를 갖는다.

반희언의 효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세가 94세였던 한 겨울에 딸기를 드시고 싶어 했다. 이에 효자 반희언은 눈이 하얗게 쌓인 산으로 향했다. 그러자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반희언의 앞에 납작 엎드렸다. 반희언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순식간에 산딸기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반희언이 산딸기를 따자 다시 호랑이가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렸다. 또다시 호랑이의 등에 타자 집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는 사라졌다. 효자동 벽화 골목에 가면 호랑이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효자 반희언은 거두리와 효자동 이외에도 퇴계동의 지명유래와도 연관되어 있다. 아무튼 효는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효를 구시대의 유물로 버려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글 허준구(춘천문화원 사무국장)

춘천에서 나고 자랐다. 강원도 정신의 원류를 찾는 작업을 평생 소명으로 여기고 있으며 고향 춘천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춘천학에 매진하고 있다. 요즘은 한문원전 번역사업과 춘천역사인물에 대한 발굴과 연구 등에 집중하고 있다.



봄내골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18



“치아가 3개뿐인 김동진씨에게 틀니를 선물해 주세요”

치아가 3개뿐인 동진씨가 살아가는 방법

적막한 병원의 아침, 째깍대는 초침소리에 김동진(가명 · 44세 · 효자3동)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첫 끼니를 받아든 동진씨는 미온수에 밥을 말아 숨 한 번에 꿀꺽 삼키고 마는데요. 어릴 적, 낙상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장애가 생겼고 장기간 치료를 받다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시나브로 치아가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폭력성이 짙어지고 과대망상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친형은 동진씨를 포기하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헌신적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6년 전부터 국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속절없이 사라지는 동진씨의 치아를 볼 때마다 혈육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밥 한 술에 불고기 한 점 얹어 꼭꼭 씹어 먹고 싶습니다

주위의 환자들이 맛있는 간식을 나눠먹을 때 동진씨는 우두커니 창밖을 바라보며 입맛만 다십니다. 어쩌다 음식을 먹을 때면 잇몸으로 대충 씹어 삼키는 바람에 위장에 큰 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동진씨에게 틀니를 선물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진씨가 고슬고슬 밥 한 술에 달달한 불고기 한 점 얹어 꼭꼭 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세요. 소중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 김동진(44세 · 효자3동) 모금기간 : 10.1. ~ 10.31.(1개월) 목표금액 : 260만원(틀니 및 치과 치료) 모금계좌 : 농협 203-01-548843(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방법 : 후원릴레이 000(예금주 성명) 후원문의: 시 복지정책과(033-250-3750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033-244-56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후원릴레이 15호, 16호 모금 결과

우리 시는 지난 9월 4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15,16호 대상자 임*무(81세/사북면), 지*훈(84세/효자2동)님께 각각 간병비 700만원, 의료비 25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응답하라, 데님재킷 아니 청재킷!



사진 김화랑 모델 김휘석

2015년 하반기에 본 드라마 중 〈응답하라 1988〉만큼 재미있었던 게 또 있을까. 이전 시리즈보다 더 재미있게 본 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소시민의 서사에 당시를 그대로 재현한 집과 골목, 그리고 배우들이 마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잘한 게 여러 가지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리라. 제작진이 직접 구제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공수했다는 옷들과 소품들은 2010년대에 활동 중인 배우들을 30년 전 청소년들로 바꿔놓았다. 드라마의 배경으로 깔렸던 당시 대중가요를 듣다가 가슴이 짠한 밤도 많았다. 그렇게 잃어버린 30년 전으로 우리를 데려가준 드라마인데,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옷은 단연 청재킷이다.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가을엔 정말 청이 대유행했다. 오죽했으면 객지에 나가 돈을 벌던 누나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내 추석빔으로 청재킷과 청바지를 사다줬을까. 점점이 물을 뺀 돌청을 위아래로, 일명 '청청' 패션으로 박남정과 김완선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던 기억. 참으로 민망하지만 '응팔'의 덕선이와 그의 남자 친구들이 그랬으니까 그냥 묻어간다.

청재킷은 데님재킷이라고 해야 옳지만 그러면 왠지 새 옷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세월의 흔적을 증발시켜버린다. 찌든 때는 사양이지만 어느 정도 세월의 때는 묻어있어야 하고, 소매나 깃이 약간은 해지고 팔꿈치는 바래 있는 것, 이래야 청재킷 같은 이유는 뭘까. 청재킷에는 삼촌들은 물론 형들에 거기다가 성격이 왈가닥인 누나들의 역사까지 기록돼 있기 때문이리라. 빼앗아 입어도 죄가 안 되고, 남에게 물려줘도 욕먹지 않는 빈티지의 대명사. 유행을 안 타니 장롱 속에 모셔놔도 버리고 싶은 유혹과 버리면 안 되는 죄책감 사이를 오갈 필요도 없다. 뭔가 쪼그라드는 느낌이 드는 날, 언제든지 꺼내 훅 걸치고 나가면 멋 좀 부리는 사람으로 분류되니 어찌 이 가을에 안 입을 수 있을까. '응답하라, 청재킷!' 하면서 옷장을 열어젖히는 순간 당신은 바로 청춘으로 돌아간다.

청재킷을 입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청'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이고, 그다음 속에 뭘 받쳐 입느냐가 중요하다. 청재킷이 정장이 아니다 보니 그 안에는 맨투맨이라 부르는 스웨트셔츠나 후드티셔츠를 입어도 좋고, 라운드 면티셔츠에 셔츠를 입어도 좋다. 이어 바지나 스커트의 색감을 잘 살펴야 청재킷의 아우라가 살아난다. 색감이 어긋나면 사이즈가 안 맞는 것처럼 어색하니 신경을 쓸 일이다. 물론 오버핏으로 입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파격의 실험이 아닌 다음에는 스스로도 남들도 납득할 수 있게 색감을 잘 맞춰보자. 연청, 중청, 진청으로 채도가 다른 데님의 경우 연청이나 중청의 경우는 감색, 즉 네이비가 좋겠고, 네이비에 가까운 진청의 재킷일 경우에는 아래가 베이지, 머스터드, 올리브그린, 카키 등 블랙 빼고는 대부분 궁합이 잘 맞는 편이다.

여기에 어떻게 멋을 더 낼 수 있는지는 개인의 역량에 달렸다. 셔츠에 타이를 매고 블레이저 대신 청재킷을 걸치는 멋진 패션피플을 본 적도 있고, 연청의 청재킷 위에 네이비 싱글 울코트를 걸친 이탈리아 멋쟁이를 본 적도 있다.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울리는 데서 오는 반전의 미학이라니. 파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계절을 잘 파악한 것이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패션의 경지에 이르게 한 것이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 패션 팁들을 여기저기서 공수할 수 있는 시대, 아우라는 그대로 살리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청재킷 패션을 연출해 보자.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거리낌 없이 도전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청춘이다.



글 **손윤권**(파워 투 더 피플 power to the people 대표)
헌책과 대중가요LP를 수집하며 현대문학사를 공부했고 기지촌소설을 다룬 박사논문을 썼다.
인생의 전환기 40대를 맞아 대학에서 가르치던 일을 접고 빈티지의 맛과 멋을 공유하기 위해 셀렉트 숍을 열었다.
독특한 디자인과 장인정신이 빛나는 물건들에 탐닉하면서 손님들과 수다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구음(口音)에 젖는 가을

웬만큼 나이 든 분들은 김세레나 씨를 기억할 것이다. 벌써 일흔 하나가 되신 그녀는 추석이나 설날 단골로 TV에 등장하던 민요가수다. 요즘 잘 나가는 '국악소녀' 송소희 양의 인기는 저리가라였다. '까투리 사냥' '새타령' '갑돌이와 갑순이' 같은 레퍼토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서도소리 인간문화재 이은관(1917~2014) 씨도 명절 연휴마다 배뱅이굿으로 사람들을 TV 앞에 불러 모았다. 어릴 적엔 국악이 왠지 케케묵은 느낌이 들어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서구식 근대화 열풍 속에 그나마 추석·설날을 계기로 미안하다는 듯이 TV에 끼워준 덕분에 국악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지 싶다. 감각은 훈련으로 길러진다. 찬란히 빛나는 감각 뒤에는 고되고 오랜 연습이 숨어 있다. 훌륭한 감상자·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 명절마다 비록 대중화된 형태일지라도 꾸준히 김세레나·이은관 선생을 접했기에 국악의 저변도 근근이 유지돼 온 것은 아닐까. 필자도 그랬다. 교과서로 배운 국악기 종류와 궁상각치우, 친구 집에서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던 수심가 따위를 곁다리로 얻어들은 게 국악 경험의 전부였다. 명절 TV는 맛보기 보충수업이었다. 어른이 되어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국악과 국악인을 조금씩 접하기 시작했다. 음악시장, 음악권력의 세계에서 양악에 비해 현저히 뒤처진 국악계의 처지도 알게 되었다. 접할 기회가 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데면데면했던 국악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백사장에서 주워든 모래알 몇 개에 불과하겠지만 일부러 찾는 국악인과 장르도 생겼다. 요즘 필자가 '꽂힌' 장르를 들자면 단연 구음(口音)이다. 구음은 원래 국악 악기의 소리를 목소리로 흉내내는 것을 말한다. 스승이 단조나 정악을 가르칠 때는 종종 실제 악기를 연주하는 대신 구음으로 소리내어 제자들이 그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가야금은 "청홍둥 당동당", 대금은 "라러르 라로리"라고 소리내는 식이다. 판소리 명인처럼 상당한 경지에 이른 소리꾼은 구음 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해 또 다른 차원의 목소리 예술을 창조한다.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연주 방식을 시나위라고 하는데, 구음과 시나위가 만나면 바로 '구음 시나위'가 된다. 요즘 필자는 남해안 별신굿 예능보유자 정영만(1956~) 선생의 구음 시나위에 젖어 있다. 12대째 세습무 집안 출신인 그는 젊은 시절 '무당 자식'이란 소리를 피해 타지로 떠나 방황하다 뒤늦게 가업으로 복귀한 분이다. 피리에도 명인이지만 근무력증 때문에 자주 연주하지는 못한다. 생전의 박경리 작가가 그를 좋아해 2008년 박 작가가 작고했을 때 정 선생이 들채굿(영혼 인도굿)을 베풀어드렸다. 정영만 명인이 특유의 탁성으로 휘몰아가는 구음 시나위를 들으면 왠지 마음의 심연을 더듬는 느낌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슬픔이나 원망을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파헤치고 송두리째 드러내어, 마침내 한의 전모와 맞닥뜨리게 함으로써 온전한 치유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힘이 있다. 구음의 달인으로 잘 알려진 김소희(1917~1995)·박병천(1932~2007) 명창의 구음 시나위와 함께 들으면 이 가을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남해안별신굿 예능보유자 정영만



글 노재현(신문유통원장)

중앙일보에서 도쿄특파원, 문화부장, 논설위원으로 일했고 중앙북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산하 신문유통원장이자 정부의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위원이다. 춘천 출신. 명동 전원다방에서 DJ를 하던 청년 시절을 가끔 그리워한다.

"그 시대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스승 최종태와 지인들이 전한 생전의 박희선
11월 26일까지 마석 모란미술관에서 20주기 추모전



박희선 작 부활 1993

소양로 태생의 조각가 박희선이 떠난 지 올해로 스무 해가 되었다. "역사의식에 바탕하여 역사를 주제로 한 조각 작품 활동을 한다" 고 관심 받던 그였다. 1994년 겨울에는 당시 마흔 살 이하의 작가에게 수여하는 김종영조각상을 수상하며 "민족적 전통의식을 오늘에 계승하여 새로운 한국적 원형을 탐색하는 점을 높이 샀다" 는 평을 들었다. 그는 개인전과 단체전을 서울과 춘천에서 끊임없이 가지며 자신의 세계관을 작품에 투영해 온 성실하고 부지런한 작가였다.

번개시장 부근 그의 생가. 여전히 작품 80여점이 주인 대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작가 살아생전 근 십여 년 작업한 결과물이다. 방 안에는 판화와 나무 조각 스물 여점이, 이십여 평 되는 바깥 작업실에는 브론즈와 돌조각, 나무 부재들이 벽면을 둘러싸고 빼곡히 쌓여있다. 가끔 그의 작품을 찾는 이들이 있어 전시회란 이름으로 바깥바람을 쐬고 오기도 하지만 거개는 홀로 집을 지킨다. 부인 김길진 씨가 자주 오며가며 안부를 묻곤 한다지만 주인을 먼저 보낸 작품은 조금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촉망받던 조각가, 암으로 세상 떠

1997년 3월 1일을 몇 분 앞두고 작가는 숨을 거뒀다. 병명은 간암. 진단을 받은 건 1월 말이었다. "할 일이 많아 다시 일어나야 한다" 고 했던 그였다. 발병 소식을 듣고 찾아온 스승 최종태에게도 "반드시 병을 이겨내고 선생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하겠습니다" 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마흔 한 살 제자가 예순 다섯 스승에게 전한 마지막 말이 되었다. 스승은 그를 보는 순간 '안 되겠구나' 생각했고 병원 마당엘 나와서야 눈물을 쏟았다. 동기들은 "희선이는 최종태 선생이 가장 아낀 제자" 였다고 했다.

작가는 1956년 10월 3일 소양로 1가 58번지에서 4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근화초교와 소양중을 다녔고 춘천고에 입학해 조소를 처음 접했다. 한 차례 재수 끝에 1977년 서울대 미대 조소과에 입학했고 4년 뒤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리고는 곧 조교생활을 시작하였다.

엄중한 시절이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졌고 휴교령도 반복됐다. 어지러운 시기,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시절을 견뎠다. 최종태는 "박희선은 저항적 체질이었지만 나 때문에 많이 자제했을 것" 이라고 했고 동기들은 "그는 생각이 깊었고, 내면 싸움을 많이 한 사람" 이라고 했다.

강원도 소나무 같은 사람

박희선은 1982년 젊은 조각가들과 '마루조각회' 를 결성했다. 분단을 주제로 조각을 통한 현실인식과 표현가능성을 모색하는 모임이었다. 그것을 확장해 1988년에는 '한국성–그 변용과 가늠전' 모임을 만들어 '단기 4231년 선언' 을 통해 "자생적 미의식에 주목하며 한국성의 틀 속에서 새 조형성을 창조하겠다" 고 했다. 작가에게 '우리 것' 은 중요한 화두였다.

한국 미술계에서 1960–70년대는 서양에서 유입된 추상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조각 또한 그러했다. 우리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절이었다. 지난 5월 서울 연남동 자택의 작업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최종태의 회고는 이렇다.

"박희선이 나한테서 본 게 있어요. 그 시절 서양조각이 들

어왔을 때 나는 한국적인 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주체성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박희선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하더라구요. 본인도 그런 쪽으로 하고자 했고. 중심은 한국성이었어요. 70년대 말 80년 초 박희선이 친구들과 한국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더라구요."

한국성은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1988년에 쓴 작가노트에서 당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누구를 위한 일(예술, 창작)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 분명하다. 아무리 지구 위 어느 인종, 국가, 사람을 한 꺼풀 벗겨보더라도 발바닥에 이어져 있는 끈은 남아 있는 것이다. 내가 역사로 생각하는 이 시간에 역시 역사의 언저리가 아닌 역사의 중심에 서서 통일을 생각하며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박희선은 투박한 재료를 통해 시대 상황을 자기 식으로 풀어간 작가였다. 평론가 최태만은 "상처로 점철된 우리의 역사를 작업의 모티브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추상적으로 상징화 해 작품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했다"고 했다.

최종태의 표현에 의하면 박희선은 "억센 소나무를 기차게 잘 다룬 이" 였다. 그는 "박희선은 한국나무, 그 중에서도 소나무를 깎아서 성공한 사람" 이라고 단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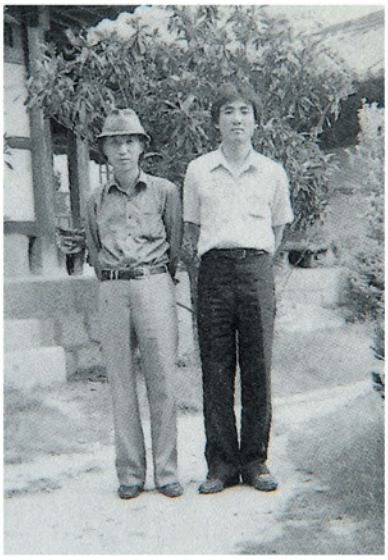
"소나무는 옹이가 많고 결이 있어 다루기가 어려운데 희선이는 그걸 해 냈어요. 옹이도 그대로 살리고 깨진 것도 그대로 살리고. 한국 조각미술의 흐름에서 봐도 박희선 만큼 한국 나무, 소나무를 잘 다루는 작가는 없다고 봐요". 감각 없이는 어려운 작업이라는 얘기이다.

외로운 작업, 힘이 된 사람들

그는 고향을 사랑했다. 동기들은 그의 작품에 강원도가, 춘천이 슬몃슬몃 보인다고 했다. 최종태도 "그의 고향 강원도 산새처럼 우람한 볼륨에다 더디고 소리 없는 선들 그 아래에 복사꽃 피는 마을 같은 그런 것이 박희선의 작품" 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서울에서는 "친구 좋아하고 아래위로 사람들을 좋아해 그 사이를 많이도 누비고 다녔다" 는 그는 정작 고향에서는 외로워했다. 그를 피했을 수도, 그가 피했을 수도 있다. "과묵하고 무언가 불만스러우며 더러는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인상"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 "희선이 성격이 누가 하란다고 하는 사람인가!" "타협할 줄 모르던 사람" "강퍅한 자기 세계를 가진 이" 말은 투박해도 마음은 섬세". 취재 중 접한 그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 둔 곳이 있었으니 가톨릭 영세자 모임(9·5회)이었다.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2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교유했다. 그들 중 박희선이 형처럼 따랐다는 윤주한은 "우리는 매일 만났고 얘기를 나눴고 술을 마셨다" 며 "아퀴나스(토마스 아퀴나스·박희선의 세례명)는 고민 많던 서울생활, 어수선한 시국, 자기의 작품세계 찾기, 비껴가지 않는 가난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데 고향 춘천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다" 며 "무엇보다 예술 세계를 인정받고픈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 고 했다. 그래서였을까. 김길진 씨는 "남편이 돌연 가톨릭에 귀의해 영세를 받고 영세 동기들과 어울려 다닌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 고 전했다. 그때는 그가 무척이나 바라던 장녀 경하와 열두 살 터울의 아들 준현을 얻었을 때이기도 하다.



최종태와 박희선 1987



소양로 작업실에서 1996

그를 다시 아로새기다

박희선은 가족이 모인 가운데서 눈을 감았다. 평온한 표정이라고 했다. 이른 나이로 간 그였기에 그의 시신이 안치된 춘천도립병원엔 조문이 줄이었다. 그리고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정족리 천주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그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은 "바람은 찼지만 화창한 날이었다" 며 "희선씨 친구들이 슬픔 속에서도 회다지를 참 씩씩하고 힘차게, 아주 우렁차게 했던 기억이 난다" 고 회상했다. 그해 모란미술관에서 열기로 한 개인전은 이듬해 봄 유작전이 되었다.

2012년 15주기가 되던 해 춘천KBS에서 유작전을 열렸고 그가 간지 이십년 된 해인 올해, 다시 모란미술관에서 그의 추모전을 연다. 이번에는 그와 동시대에 작업한 친구 7명과 스승 최종태의 작품이 함께 오른다.

"작가는 타고난 몫을 다 하면 돼 요. 그런 면에서 희선이는 할 만큼 했지. 마지막 몇 년 동안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뒤이은 말. "그 시대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스승이 먼저 간 제자에게 이십년 만에 다시 전한 추도사로 들렸다.

글 **이우진** 상임위원 사진제공 **김길진**



박희선 20주기 추모전 "그를 아로새기다"

장소: 모란미술관(남양주 마석)
일시: 9.23(토)~11.26(일) (10.2~6. 추석연휴 휴관)
오픈행사: 10.14(토) 오후 4시
박경하(딸·바이올린) 홍솔매(사위·첼로) 이중주
내용: 한반도, 민들레, 사람 등 작품 30여점
참여작가: 최종태, 윤영석, 김세일, 정연희, 조병섭, 전항섭, 정광호, 임영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 | **황지아**(여아)
부모 | 황우주(아빠) 서은경(엄마) / 신북읍
태명 | 똘순이
태몽 | 없어요
생년월일 | 2016년 2월 11일



지아 탄생이야기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 걱정 했는데 첫째가 임신되고 출산 후 돌이 되기 전 둘째가 임신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하나는 외로워서 걱정했는데 둘째가 생겨서 너무 좋았지요. 직장 다니면서 첫째 육아에 힘들었는데 뱃속에서 고맙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3.1kg으로 아주 건강하게 이쁜 딸이 태어났어요. 첫째는 똑똑하게 자라라고 태명이 똘똘이. 둘째는 딸을 바라는 마음으로 똘순이이네요~

지아에게 바라는 것

엄마아빠의 딸이어서 고맙고, 오빠랑 잘 놀고 아픈 곳 없이 튼튼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크길 바랄게~ 승빈, 지아 많이많이 사랑해~~

아기 | **배이겸**(남아)
부모 | 배민찬(아빠) 송미라(엄마) / 동면
태명 | 짱짱이
태몽 | 큰 블루베리(엄마 꿈)
생년월일 | 2017년 3월 3일



이겸이 탄생이야기

첫째가 갑자기 크게 아파 정신없던 때,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임신 초기 내내 마음 졸이고 태교도 못하고 참 미안했어요. 누나처럼 짱짱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태명을 짱짱이로 지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건강히 잘 자라주어 예정일 전날 진통 3시간 만에 태어났어요~~

이겸이에게 바라는 것

사랑하는 이겸아, 누나에게 더 신경써주느라 많이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 옹알이를 하는 겸이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워 더욱 안쓰럽단다. 너를 처음 만난 순간 엄마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다는걸 아는지~^^ 지금처럼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라주렴~ 사랑해 우리 둘째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출산 후 아기와 찍은 사진과 인적사항(아기 이름, 부모 이름, 성별, 주소, 태명, 태몽, 생년월일, 탄생 이야기, 바라는 것, 연락처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7만원)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ccc3@korea.kr
※아기는 출생 후~24개월 전후 즈음 아이입니다.

아기 | **최민하**(남아)
부모 | 최종길(아빠) 전현미(엄마) / 퇴계동
태명 | 으뜸이
태몽 | 크고 탐스러운 복숭아를 크게 한 입 베어 문 꿈
생년월일 | 2016년 6월 16일



민하 탄생이야기

임신확인 전날 임신인 줄 모르고 남편과 나들이 가고 감기약도 먹어서 걱정도 되고 미안했어요. 임신기간 입덧이 심했고, 교통사고도 있었고 전치태반이라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출산 전까지 입덧으로 힘들었지만 3.34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민하를 본 순간 열달 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민하에게 바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아들 민하야~
아빠엄마의 아들로 태어나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아이로 커가면서 세상에 따뜻한 마음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민하게 되길 바라~ 사랑해♥

아기 | **이하린**(여아)
부모 | 이준섭(아빠) 오혜란(엄마) / 퇴계동
태명 | 깜짝이
태몽 | 냇가에서 골드바를 줍는 꿈
생년월일 | 2015년 7월 10일



하린이 탄생이야기

첫째 돌잔치를 준비하던 중 지인 한 분이 "어머 둘째 생기셨나봐요?" 라는 말에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거예요" 하고는 몇주 뒤 병원에 갔더니 깜짝이가 4개월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입덧도 하지 않고 해서 정말 몰랐는데 갑자기 깜짝 생겨서 태명을 깜짝이로 지었답니다. 생각지도 않은 둘째였지만 지금은 우리 집의 행복을 주는 정말 이쁜 하린이랍니다.~~

하린이에게 바라는 것

이쁨도 많이 받고 사랑을 듬뿍 독차지해야하는 하린인데, 벌써 동생 하윤이(셋째)가 8월에 태어났구나... 동생이랑 오빠랑 싸우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지금처럼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아빠엄마에게 큰 기쁨이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고 사랑해 우리딸~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 | **이예준**(남아)
부모 | 이익형(아빠) 김경희(엄마) / 석사동
태명 | 에디슨
태몽 | 없어요
생년월일 | 2017년 2월 7일



예준이 탄생이야기

딸이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예쁜 동생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했어요. 그렇게 오랜시간 예쁜 동생을 기다렸고, 올해 드디어 남자동생이 생겼답니다.
산모 나이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지만 추운 겨울 날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 윤서가 어린 동생도 잘 보살펴 주어 우리는 행복한 4인 가족이 되었답니다. 가끔씩은 전쟁같은 나날을 보내면서 행복한 예서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준이에게 바라는 것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아가야~~

아기 | **우다빈**(여아)
부모 | 우진희(아빠) 이진주(엄마) / 우두동
태명 | 우쭈(우진희 쭈니어)
태몽 | 없어요
생년월일 | 2017년 2월 16일



다빈이 탄생이야기

남편과 6년 연애 끝에 결혼준비를 하던 중 생긴 소중한 아가~. 혼수 준비 하던 참에 덤으로 리스트 추가가 되었지요. 막달까지 일하느라 태교도 제대로 못했는데 엄마 일찍 만나려고 한 달이나 일찍 미숙아로 나와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보내야 했지만, 지금 다빈이는 포동포동한 볼살이 매력적인 아가로 이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다빈이에게 바라는 것

다빈아~ 엄마아빠가 항상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살펴 줄게. 우리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되자!
지금처럼 건강하고 이쁜 다빈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아빠가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해~~~~



아기 | **이동규**(남아)
부모 | 이정원(아빠) 조효진(엄마) / 퇴계동
태명 | 콩콩이
태몽 | 소 꿈
생년월일 | 2015년 9월 14일



동규 탄생이야기

결혼하고 한 달 지나 아기천사가 생겼어요. 기쁨도 잠시 임신초기에 유산기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회사도 한 달 동안 휴직하고 조심스럽게 열 달간 뱃속에서 잘 키워 콩콩이는 3.28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답니다.
뱃속에서 잘 견뎌주고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감사하답니다.~

동규에게 바라는 것

이미 존재만으로도 큰 선물을 안겨준 우리아들~ 엄마아빠는 큰 것 바라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아빠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사랑해^^

아기 | **안태건**(남아)
부모 | 안도연(아빠) 박교영(엄마) / 퇴계동
태명 | 반짝이
태몽 | 없어요
생년월일 | 2016년 2월 12일



태건이 탄생이야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길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반짝이라는 태명을 지었어요. 아이가 크다는 의사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정일 보다 조금 일찍 날을 잡아 자연분만으로 3.5kg에 태어났어요. 아기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너무나도 이쁘고 행복했어요. 태어나서도 모유와 분유를 잘 먹고 지금은 밥과 모든 과일을 섭렵하는 아이로 크고 있어요.

태건이에게 바라는 것

아빠엄마는 우리 태건이가 깔깔깔 하고 웃을 때 너무도 행복하고 즐겁단다. 장난치고 엄마를 쉴 틈 없게 만들지만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워. 항상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게 자라주길 바란다. 많이 많이 사랑해~



한성정보시스템 사옥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선 한정희(사진 가운데)대표

외국기업이 주도하는 데이터 저장공간에 도전장을 내다



글·사진 **김정호** 상임위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고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또한 데이터의 빠른 전송과 분석을 지원하는 최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대를 살고 있다.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스토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춘천 동면에서 국내기술로 스토리지 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 ㈜한성정보시스템(대표 한정희)을 찾았다.

국내기술로 제품 개발 생산

㈜한성정보시스템(이하 한성)은 2010년부터 서버와 스토리지 판매를 시작으로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연결 스토리지와 직접연결 스토리지를 국내기술로 개발해 2016년부터 제조·판매하고 있다. Dell EMC, 히타치데이터시스템, 넷앱, 휴렛패커드엔터프라이즈, 오라클, IBM 등 미국과 일본 등 외국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스토리지 시장에 한성이 도전을 시작했다. 한정희 한성 대표는 2001년 군대를 제대하고 IT업계에서 일을 시작했다. 2003년 조립컴퓨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2006년 폭스11, 현주컴퓨터, 늑대와 여우 등 프랜차이즈 조립컴퓨터업체들이 생겨나며 사업을 접었다. 2006년 대만 네트워크 스토리지 기업의 총괄영업을 시작하며 스토리지와 인연을 맺었다. 대만기업의 제품 가격은 미국과 일본 등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보다 저렴했지만 성능이 떨어졌다. 성능을 보완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한 대표는 2010년 서버와 스토리지, 솔루션 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 네트워크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해 2014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다. 소프트웨어기술과 하드웨어 기술을 축적해 2016년 공장등록을 하고 직접생산을 시작했다. 2016년 37억 7,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한성은 2017년 매출을 47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로 빠르고 안정적인 데이터 공유 요구 증가

저장장치에도 네트워크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네트워크스토리지(NAS)이다. 온라인 게임업체와 은행, 병원, 공공기관의 데이터양이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비교분석을 위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보관이 필요하게 되고,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필수가 되었다. 네트워크가 일반화되면서 모든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됐고, 모든 사용자들이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

한성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유가 가능한 저장장치인 Hansung Nas(HS-NAS)를 생산하고 있다. HS-NAS는 다양한 컴퓨터운영체제 사용자 사이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제품 간에 주기적인 백업설정으로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조달청 우선구매대상으로 지정되고 2016년부터 2년 연속 계약이행 실적평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또한 직접연결 스토리지인 Hansung Das(HS-DS)는 다양한 컴퓨터 운영체제와 높은 호환성과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가 좋아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다.

즐겁게 오래 다니는 회사가 목표

2016년 춘천 동면에 자리잡은 한성 사옥은 한 대표의 아이디어로 지어진 건물이다. 다른 회사 본사와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1층에 카페와 스크린 골프장이 자리잡고 있고 2층부터 사무공간이 자리잡고 있다. 4층에는 게스트하우스를 두어 숙소로 활용하고 있다. 자그마한 수영장도 마련해 놓았다. 즐겁게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한 대표의 마음이 담긴 건물이기도 하다. IT업계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직원들이 공부하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직원인터뷰

"지금도 회사는 성장중"



황지우(43) / 경영지원팀 차장

"2012년 회사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막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에 입사를 했어요.직원들과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온 회사라 애정이 가요. 처음 입사하게 된 것이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어요. 이제 조금씩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회사 이익이 생기면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려는 생각 있는 대표를 만난 것도 행운이죠. 그런데 직원들과 즐기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해외여행을 가자는 대표님을 직원들이 말리고 있죠. 아직 만들어 갈 것이 많은 회사로 기대가 되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무더운 여름 사랑의 에어컨

사회봉사자 강연숙(46) 씨



"늦었지만 남은 더위 잘 견디시며 건강 잃지 마세요"

영상 33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효자동 동보아파트 경비실에 자비로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근무자에게 강연숙(46) 씨가 건넨 말이다. 이 아파트 687세대의 경비 업무는 65세가 넘는 경비원들이 24시간 교대로 담당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폭염에 아파트순찰과 주변청소, 각종 생활쓰레기 수거 및 정리, 출입차량 관리 등을 하는 근무자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아파트자치회장과 통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 씨는 아파트직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택배와 우편물을 관리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마다 명절에는 선물을 챙겨주며 근무자를 격려하고 고충을 함께 나누어 왔다.

강 씨는 효자복지관 김장담그기 봉사, 참사랑의 집 봉사, 효자 무료급식소 식당업무 보조 등 수많은 봉사활동을 묵묵하게 해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강 씨는 "이제 시작" 이라 말한다.

이웃을 배려하고 고통을 나누는 좋은 분위기 때문에 경비원 모두는 "더 열심히 일하여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보답해야겠다" 고 이야기 했다.

권진택 명예시민기자

한국을 빛낼 연주자 춘천에서 자란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신나는 오케스트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으로 구성된 '신나는 오케스트라' 에서 청소년 꿈나무단원들이 자라고 있다. 2010년 창단하여 8번의 정기연주회를 가지며 단원들이 실력이 늘어가고 있다. 현재 71명의 청소년 단원들은 13명의 파트별 지도 선생님과 함께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제7회 정기연주회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올해 7월에 열린 제8회 정기연주회부터는 춘천시와 춘천시문화재단이 지원을 하고 있다. 연주곡은 비교적 어린이들이 연주하기 편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 베토벤의 '심포니교향곡 7번2악장' , 요한스트라우스2세의 왈츠 '박쥐서곡' , 대중에 익숙한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1번' , 누구나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멜로디의 '오페라의 유령' 등이다.

박기범 감독 겸 지휘자는 "단원출신 학생들이 음악대학에서 여러 명 수학하고 있다" 며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예술교육을 위해 단원 증원을 고려하고 있고 문화적 소외계층의 문화 나눔 확대를 위해 연2회 연주회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문의 259-5833

박광택 명예시민기자



꿈꾸세요. 날개 달아드립니다

소양야간중·고등학교



어둠이 짙어지는 밤이면 60·70대의 학생들이 좁은 교실로 모인다. 교사는 허리 굽혀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는 소양야간중·고등학교(교장 전운봉). 찌든 가난으로 어려웠던 시절 학교를 갈 수 없어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낮에는 일하고 밤이면 고단함을 이기고 늦깎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 학교 입구에 걸린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자' 는 교훈은 배움을 이어가는 그들의 현실을 느끼게 했다. 현재 전운봉 교장과 구철진 교감 그리고 18명의 자원봉사 대학생 선생님들이 무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소양야간중·고등학교는 버거운 길을 걸어왔다. 1966년 11월 지영섭 씨가 근화초등학교에 천막교실을 세워 '소양야학' 이라는 이름으로 중등과정 34명을 모집한 것이 시작이다. 그 후 '소양야학' , '소양새마을학교' , '소양재건학교' 등으로 불리다 1991년부터 '소양야간중·고등학교' 가 되었다. 건물 임대료를 마련하지 못해 여러 번 옮겨다녀야했다. 1976년에 요선동으로, 다시 2001년에는 죽림동으로, 그리고 2007년에 후평동으로 옮겨다니다 지금의 자리인 효자 87번길에 자리잡은 것은 2009년이다. "몇 차례 학교 문을 닫을 위기를 신용철 전 교장, 정태섭 전교장, 전재덕 전교장 등의 도움으로 넘겼다" 며 전 교장이 당시를 회상했다.

51년간 2,000여 명의 늦깎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의 꿈을 이루기도 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는 옛말처럼 지금도 소양야간중·고등학교 교실에는 배움의 꿈을 이루겠다는 어르신들의 집념이 초가을 밤 별빛을 타고 희망으로 흐르고 있다.도교육청과 시청에서 연 1,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건물 임대료, 냉·난방비, 전기료, 교재제작비, 사무비 등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고 배움이 기회를 주고 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진행된다. 구 교감은 "교사가 부족해 때로는 수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며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사랑의 소원 자물쇠로 잠가

소양강 스카이워크의 새풍속도

소양강 스카이워크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해 대형풍선이 하늘 높이 떠 있어 축하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이곳을 찾았던 연인과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저마다 사랑의 소원을 짧은 글귀를 자물쇠에 적어 영원토록 변치 않기를 바라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너에게 잠기다 Romantic chuncheon' 소원을 비는 자물쇠 코너엔 '항상 날 예뻐해 주시어 사랑해요' , '우리사랑 오래도록... 얼른 제대하고...' , '사랑해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등 간절한 소원을 담은 자물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결실에 계절과 함께 알알이 소원이 영글어 가기를 함께 기원해 본다.



권진택 명예시민기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와드립니다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난 4월 개소



지난 4월 동내면 거두리성당 입구에 '춘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 문을 열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행위를 비롯해 학업진로, 건강문제, 가정문제, 일탈과 비행 등 전반적인 내용을 춘천카톨릭청소년회 소속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5명이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진행되고 단순상담이 아닌 고민해 오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정문제로 가출한 청소년이 갈 곳이 없는 경우 쉼터와 연계해 숙식을 해결해주고, 공부를 하고 싶은 상담자는 도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직업을 희망하면 직업사관학교와 연계해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있다. 또 건강문제와 병원비 등의 어려움을 상담한 사람에게는 보건소와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도움을 준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도 상담을 통해 그 굴레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부모님에게 억지로 끌려와 상담을 받고 간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우리아이가 변했어요. 고마워요" 라는 전화가 오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청소년이 찾아와 "고맙다" 며 인사를 할 때는 상담사로써 긍지와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만취상태로 전화를 걸어 성문제를 상담하거나 반복해서 같은 말로 여상담사를 괴롭힐 때는 어떤 대책이 없다며 상담사 일이 쉽지 않음을 귀띔해주었다.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맡은 교사도 센터를 찾아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지식을 얻어가기도 한다. 상담은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고민도 함께 상담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규성(48) 대표는 "학부모께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상담소 문을 두드리라" 고 강조한다. 혼자 하기엔 힘겨운 일도 여럿이 뜻을 모으면 의외로 쉽게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뜻이다.

8월 31일까지 청소년과 학부모를 상대로 818건의 상담을 했다. 주로 상담한 내용은 일탈과 비행에 관한 상담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 163건, 정신건강관련 102건, 가족관련상담 97건, 심리검사 34건 등이다. 센터를 직접 찾은 상담자는 초등학생 83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중학생 79명, 고등학생 16명으로 나이가 어린 층이 많이 찾았다. 반면 학부모들은 주로 전화를 이용해 162건의 상담을 해 센터를 직접 찾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의 818-1388 (휴일 및 야간에는 국번없이 1388)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반찬으로 어려운 이웃 도와요"

춘천아이쿱생협 반찬봉사모임 '콩세알'

도시락을 씻고 찬거리를 다듬고 뚝딱뚝딱 도마소리에 이어 가스불이 켜지고 큰 냄비와 후라이팬이 올라가고 쏴~ 기름 위에 얹히는 감자소리에 심장이 쿵. 퇴계동에 위치한 춘천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춘천아이쿱생협) 우리뜰 공간의 매주 월요일 아침 풍경이다. 14명의 반찬봉사자와 8명의 배달봉사자가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모은다. 모임 이름하야 '콩세알' .

'콩세알' 은 콩을 세 개 심어서 하나는 땅속 짐승이 먹고 하나는 땅위 짐승이 먹고 남은 하나는 사람이 먹는다는 뜻으로 콩세알을 혼자만 먹으면 한 사람만 행복하지만 셋이 나누어 먹으면 셋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반찬봉사 모임이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정성으로 조리한 맛있는 음식을 도시락에 싸고 따뜻한 마음까지 담아 5년째 이웃에게 전달한다. 현재 홀몸노인,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정에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꽃보다 배달이라는 팀명으로 배달만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안정미 씨는 "음식을 가져다드리면 외로움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며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없는 게 안타깝다" 고 전했다.

봉사활동 소감에 대해 콩세알 초기 멤버로 지금까지 활동



하고 있는 고현아씨는 "나누며 사는 삶이 자연스러워졌고 나눔을 하며 처음과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씩 생기고 의도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함께 서서히 느껴가는 것 같아 좋다" 고 했고 이영숙 씨는 "멀지 않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서 좋다" 며 "작은 나눔이지만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작더라도 힘이 보태질 거라고 믿는다" 고 전했다.

문의 261-6263

서은영 명예시민기자

군복무 중 1:1 멘토링으로 인생진로 도움

2013년부터 이어져



지난 8월 25일 강남동 예비군동대 사무실에서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박란이) 사회복지사 2명과 강남동 예비군동대(중대장 유대희) 병사(훈련교관) 2명이 결연하는 '민·군 비전 잇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매결연식이 진행됐다.

이날 결연자는 임호균상병과 권성순 사회복지과장, 서승덕 일병과 고광준 사회복지팀장이었다. 자매결연은 정기적인 1:1 멘토링을 통해 병사들의 보람 있는 군복무와 전역 후 비전탐색을 지원하고 군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는 춘천 남부노인복지관과 강남동 예비군동대가 2013년부터 다양한 활동으로 '민·군 비전 잇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이어온 결실이다. 권성순 사회복지과장은 "임호균 상병으로부터 장래의 꿈이 사회복지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후배양성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군생활을 돕고 싶었다" 며 "민과 군, 협력의 문화선도 모델이 되고 싶다" 고 소감을 말했다.

유대희 예비군중대장은 "군 신뢰도를 높이는 홍보대사" 임을 주지시키고 "안보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할 것" 이라고 했다.

박광택 명예시민기자

노래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시립복지원 노래봉사 석민영(48) 씨



한 달에 한 번씩 시립복지원에 마련된 무대에서 여느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으로 어르신들의 큰 박수를 받고 있는 석민영(48) 씨. 결혼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한동안 노래를 잊고 생활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노래였다. 오랫동안 묵혀놓은 자신의 취미를 다시 꺼내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 해결은 물론 생활에 활력을 되찾았다. 그리고 혼자 즐기기보다 자신의 특기를 어르신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래 부르는 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수학을 전공한 탓도 있지만 허투루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 복지관에 등록해 정식으로 노래를 배웠다.

"노래가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는 석 씨. "이제 노래하는 봉사가 있을 때면 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다" 며 환하게 웃는다.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흥겨워 하는 어르신들 보면 스스로가 행복하다" 는 석 씨다.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저 어르신들이 좋아서였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게 많은 정이 간다는 석 씨.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하고 연습도 더 많이 한단다. 그래서일까 그가 노래를 부를 때면 어르신들은 무대 앞에 나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춘다. 석 씨는 "좋아하는 일을 혼자 즐기기보다 이웃과 함께 하고 싶어 시작했다" 며 "요즈음 노래 한소절에서 예전에 느끼지 못한 작은 행복을 찾았다. 기회가 될 때까지 어르신들을 위해 계속 하겠다" 고 말한다.

"자신의 취미가 이웃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일찍 알지 못해 아쉽다" 는 석 씨. 자신만을 위한 취미생활도 좋지만 이웃과 함께 하는 일이 우리사회에 더 많아지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나눈다면 진정한 봉사활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석 씨처럼 자신의 취미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일이야 말로 건강한 취미생활이 아닐까.

그는 바쁜 일과 중에 취미에 푹 빠져 노래 부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좋은 소리 좋은 음악, 이보다 좋을 수 있나요?”

매달 음악감상회 열어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창고지기 임수환 씨

토요일 10시. 휴일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 모닝커피를 마시기엔 최적의 시간이다. 거기에 음악이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이겠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웃들에게 ‘음악나눔’을 하고 있는 소양1교 부근의 카페 음악창고. 지난 2일에는 ‘해설이 있는 음악 감상회’라는 제목으로 강원대 이한돈 음악과 명예교수가 음악 해설을 하고 선우미애 시인이 ‘시낭송’을, 김명우선생의 추천음악코너로 진행되는 등 나름 짜임새 있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 감상실을 찾아다녔어요. 감상실을 다니면서 이런 곳을 만들어 누구나 음악을 가까이 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었죠”

음악창고의 창고지기 임수환(63) 사장은 1년 반 전에 31년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춘천으로 내려왔다. 춘천에서 제2의 인생을 음악감상실로 시작한 것이다.

“음악을 직업으로 하기엔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했어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풀었죠. 좀 더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 하나둘 사 모으기 시작한 음향장비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보다 좋은 음향으로 음악을 듣고 싶은 분들이 음악감상회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커피도 무료로 드려요. 음악을 나누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고 보람입니다.”

첫째 주 토요일뿐 아니라 셋째 주 토요일에도 깜짝 이벤트가 열린다. 군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음악감상회가 바로 그것. 더 나아가 몇몇 뜻이 맞는 업주들과 함께 군장병을 위한 존(zone)을 만드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음악의 주요 장르는 클래식을 중심으로 하되 국악, 팝, 오페라, 재즈 그리고 가요 등 찾아오는 손님들의 취향을 최대한 반영한다. 음악회를 찾은 최홍순(퇴계동·60) 씨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소중한 인류문화유산인 음악을 고급 음향 기기들을 이용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창고지기 임수환사장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문의 243-1550 **김정운** 명예시민기자



"그림동호회 '새벽'을 아시나요"

춘천과 홍천출신 미술인들 갤러리 바라 전시(10.16~31)



그림동호회 '새벽'이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시민들 앞에 내놓는다. 춘천교대 맞은편에 자리 잡은 갤러리 '바라' (10.16~10.31일)와 홍천미술관(11.2~11.8)에서 회원들이 선보일 작품은 초상화, 크로키, 조각, 수채화 등 24점이다.

2004년, 춘천과 홍천에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새벽'은 그해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10년 넘게 정기전과 기획전을 열고 있다. 52세부터 63세까지 총 8명의 회원들은 올해만 4명이 개인전을 열 정도로 의욕이 넘친다. 더 잘 그리고 싶은 목마름에 늦깎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까지 들어간 회원도 여러 명. 전공은 했지만 사정상 놓고 지냈던 회원도 있고 그림이 좋아 취미로 시작한 회원도 있지만 열정만은 같다.

창립멤버 김영숙(52· 홍천)씨는 취미로 시작한 케이스.

"그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혼 후 아이를 등에 업고 홍천의 한 미술학원을 찾아갔죠. 데생부터 배워 30대 초반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입상을 했어요. 비로소 나를 찾은 기분이 들더군요."

지금도 배우기를 쉬지 않는 김영숙 씨는 올해 5월 첫 개인전도 열었다.

이희숙(55· 춘천)회장은 결혼과 함께 접었던 그림을 38살에 다시 시작해 2014년 강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고 작년엔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특선을 거머쥔 실력파다.

"그림은 노년으로 향해가는 우리 회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죠. 일상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놓지 않고 정진하는 그림동호회 '새벽'을 지켜봐주세요."

이희숙 회장의 얼굴 가득 당당함이 묻어있다.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아트(ART)에서 으뜸 되고 싶어요"

10월 13~19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전시회 열어



소양강이 내려다보이는 상가건물. 2층과 맞닿은 계단을 오르자 아름다운 중년들이 캔버스에 열심히 색을 입히고 있다. 뚜렷한 간판도 없는 이곳은 순수미술동아리 아트원(ART원) 회원들의 공동 작업실이다. 40대부터 70대까지 26명의 회원들은 그룹을 정해 하루 3시간씩 이 공간에 와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펼친다. 매일 만나다보니 가족 같은 사이가 돼 호칭도 언니 동생이다. 왕언니 안경애(75)씨는 "집에서는 집중이 잘 안되는데 여기 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며 힘차게 붓질을 한다. 전태원 작가(서양화가· 한국예총 춘천지회 명예회장)로부터 그림 지도를 받아온 수강생들이 '아트(ART)에서 으뜸이 되자' 며 동아리를 결성한 게 2009년. 주부로,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살다 그저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작은 욕망 하나로 시작해 이젠 놓을 수 없는 삶의 의미가 됐다.

그림을 시작한 지 5년 됐다는 김영미(54)씨는 "어느 날 우연히 전시회를 찾았는데 갑자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 선생님을 찾아갔지요. 1년 후 호박꽃을 그려 봄내전에 출품했을 땐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그때보다 실력이 늘었지만 우리 집 거실 중앙은 여전히 그 호박꽃 그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각자의 화실이 없어도 한곳에서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면서 자극도 받으니 실력이 쑥쑥 는다는 회원들. 그래서인지 아마추어로 시작했던 사람이 여기저기 공모전에서 입상하고 강원미술대전 초대작가와 추천작가를 배출하는 등 일취월장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매년 정기전도 열고 있는데 올해 준비한 전시회 주제는 '삶의 터 – 춘천의 전통장터' 다.

10월 13~ 19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춘천의 전통시장 풍경 26점과 자유소재 26점을 선보인다. 이성숙(62)회장은 "많이들 구경 오셔서 그림들마다 느껴지는 스토리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라고 했다.

전시 그림은 강원도재활병원 로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10. 20~12.19)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여고생 때부터 꿈꿨던 무대갈증 풀어 내야죠”

엄마像 뒤엎는 두 편의 연극에 주연배우로 출연하는 김미아 씨



올 가을 엄마 혹은 딸들의 가슴을 울릴 연극 두 편이 무대에 오른다. 엄마의 가을이라는 테마로 〈먼로, 엄마〉와 〈나는 꽃이 싫다〉가 바로 그것이다. 눈에 띄게도 주인공이 같다. 다른 작품 같은 주인공, 배우 김미아(53) 씨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그려낼지 색다른 무엇이 있을지 궁금했다.

“엄마도 사람이란다”

“〈먼로 엄마〉는 이미테이션 가수엄마의 이야기이고 〈나는 꽃이 싫다〉의 엄마는 30년 전 딸을 놓고 미국으로 갔다가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두 편 다 우리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정관념의 어머니상은 아니에요. 옛날처럼 아랫목에 밥을 놓아두거나 희생하는 헌신적인 엄마들은 아닌. 어쩌면 아이들이나 자녀 입장에서 엄마에 대한 모습에서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꽃이 싫다〉의 엄마는 30년 만에 딸과 재회를 했어도 울거나 속죄하지 않는다. 엄마와 딸의 입장차가 있어 어색함을 느끼며 극이 진행된다고 한다. 지역에서는 첫 공연이라고 했다.

반면 〈먼로 엄마〉는 입체낭독극이다. “이 작품은 연극처럼 배우들이 액션을 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대본을 보면서 읽어요. 무대도 약간의 세팅과 음향, 조명만 들어가요. 먼로 엄마도 정극으로 올릴 생각이었지만, 마릴린 먼로는 누구나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관객의 기대와 보여주는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낭독극 형태를 취했죠. 어떤 분들은 아예 눈을 감고 듣기도 하세요”

그는 관객에게 정극보다 오히려 감동의 크기가 컸다는 평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열혈관객이 열혈배우로

배우 김미아씨는 50대의 중견배우로는 드물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업배우다. 현재 극단 도모 소속이다.

“도모는 극단 굴레 출신 황운기대표가 ‘연극으로 밥벌이 해보자’ 해서 만든 단체인데 지역에서 연극으로 밥 먹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곳에 연극하는 20대 젊은 친구들은 많은데 그 위의 연령대가 거의 없는 편인걸 보면…. 저는 연극과 전혀 상관없는 교습소를 하면서 연극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고 일 년에 한두 편씩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계기가 되어 2014년에 온전히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연극에 발을 디딘 건 1980년대 양갈래머리 여고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극의 르네상스시대라 불리던 당시 시립문화회관(도청 앞에 있던 공연장. 현재는 없어졌다)에 연극이 오르면 빠지지 않고 보는 열혈 팬이었다고 한다. 대학시절 연극에 관심 있는 선배들과 번역극을 하며 불씨를 키우다 졸업 후 극단 짚세기에 합류에 활동했다. 이후 극단 굴레에 스카웃되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다.

“초등학교 때 일요일 밤 눈을 비비며 악착같이 명화극장을 봤어요. 그때부터 연기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연극도 꼭 ‘연극을 해야지’ 라는 것보다 연극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나봐요.”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으로 시원시원하게 자신의 일과 연극에 대한 열정을 털어 놓은 그처럼 누구나 하나쯤 꿈에 대한 동경을 지니고 있다. 그 끈을 놓지 않으면 이뤄진다. 배우라 불리는 김미아처럼….

연극 〈나는 꽃이 싫다〉 10.16(월)~18(수) 오후 7시30분 축제극장 몸짓 2만원
입체낭독극 〈먼로, 엄마〉 10.26(목)~28(토) 평일 7시30분/주말 5시 갤러리 4F 1만원
예매문의 253-7111

김정운 명예시민기자

전시



자끄 앙리 라띠그 작

'자끄 앙리 라띠그' 회고전

프랑스의 사진작가 자끄 앙리 라띠그의 회고전인 〈라 벨 프랑스〉가 11월 12일(일)까지 KT&G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된 작품은 20세기 프랑스의 풍경, 상류계층의 삶, 여인들의 모습 등 150여점으로 꾸려졌다. 전형적인 격식 위주의 사진과 다른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언론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관람료 일반 1만원(강원도민 50%), 학생 2천원 미취학아동 무료. 10시~19시. 휴관일 10.4(수 · 추석 당일) 10.14(토). 문의 ☎070-7586-0552

이상원미술관

최은경 개인전 〈대지위의 사과〉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 사과를 다양한 재료의 작품으로 제작해 선보인다. 투명아크릴에 전사된 맑은 녹색 사과와 색다른 질감과 색상으로 표현된 세라믹 사과 등 미술관 안팎에서 그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9.28(목)~2018.1.14. 휴관없음. 문의 255-9001

권진규미술관

한국근대미술소장품전 〈파란의 예술가들〉

이중섭, 박수근, 나혜석 등 한국의 근대를 대표하는 이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10.30(월)까지. 문의 ☎243-2111



오제언 작

갤러리에이치

공모작가 핫아티스트-이재정 서양화 개인전

"작업은 시들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눈과 심성을 가다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가진 사랑을 보듬는 안식과 같은 것이다." (작가노트)

10.3(화)~10.15(일)

12시~18시30분. 월요일 휴관. 문의 ☎070-4148-1654

공모작가전-오제언 공중누각전

"나에게 있어 옻칠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옻나무에서 추출되는 수액이라는 천연 재료로서의 의미 이상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검은 빛의 옻은 어두움 그 자체지만 보면 볼수록 나타날 듯 사라질 듯,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이상적 세계와 현실의 애매모호한 경계를 보여준다" (작가노트)

10.17(화)~10.29(일)

12시~18시30분. 월요일 휴관. 문의 ☎070-4148-1654



최혜선 작

최혜선 개인전 〈혜선이네 행복한 문방구〉

"나는 그림마다 우는 여자아이를 등장시킨다. 여자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사탕하나에 눈물을 그치고 피식 웃는다. 나는 아프고 힘들어도 사탕하나로 웃을 수 있는 게 행복이라 생각한다.…전시에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작가노트)

10.18(수)~10.25(수) 10~19시

장소: 일단가게(중앙시장과 육림고개 연결구간, 중앙로 77번길 17)

문의 010-9159-1566

여행



가을인데 떠나볼까 '봄내길 걷기여행'

가을의 들판과 호수의 물그림자를 벗 삼아 낭만춘천을 만끽할 수 있는 봄내길 걷기여행이 1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린다. 9월 2일 품걸리 오지마을길을 시작으로 9월 23일 홍천 가는 옛길을 걷은 여행팀은 9월 30일 석파령 너미길, 10월 9일 샘밭숲속길, 10월 14일 의암순례길, 10월 21일 북산면 부귀로 하우고개~소양예술농원(봉화산길), 11월 4일 느랏재 임도길(감정리)을 걷는다. 해설사가 동행하며 모든 코스마다 기체조와 음악공연이 준비된다. 맨발걷기, 홀로 걷기 등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도 갖는다. 참가비 12,000원~3만원. 문의 ☎251-9363, bomne.co.kr

가을,
춘천은 축제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프로그램

춘천시립예술단 유료. 문의 259-5821

'휴가다 모닝콘서트' 10.13(금) 오전 11시 춘천문화예술회관 로비

'제138회 정기연주회-베토벤교향곡' 피아니스트 백건우 협연 10.19(목) 오후 7시 30분 춘천문화예술회관

춘천마임축제 '넌버벌 코미디 마임쇼' 10.23(월)~24(화) 오후 7시 30분 축제극장 몸짓 야외공연장. 무료. 문의 ☎242-0585

춘천고음악제 무료. 문의 ☎050-7095-7127

'듀오527' 영화음악속 바로크 음악 10.28(토) 오후 7시 30분 축제극장 몸짓

'무지카 템퍼스' 10.29(일) 오후 7시 30분 축제극장 몸짓

춘천연극제 '할머니는 믿지 마세요' 10.29(금) 오후2시, 5시 춘천인형극장 무료. 문의 ☎241-4345

춘천인형극제 '선녀와 나무꾼' 10.30(월)~31(화) 오전11시 오후2시 춘천인형극장 무료. 문의 ☎242-8452

김유정문학촌 주말상설공연

김유정 문학콘서트 10.7(토) 오후2시

진행 최윤식(문학촌 전문해설사) 오두석밴드(음악) 김유정의 생애와 문학(소설가 전상국), 김유정 추모시 낭송(정주연· 허문영 시인), 김유정 소설 입체낭송(보키니 낭송팀), 내고향 실레마을의 김유정(강대섭 마을주민) 내가 만난 김유정의 문학세계(김민정 전문해설사)

이런음악회 10.14· 28(토) 오후2시

아시안팝스오케스트라 연주로 귀에 익은 추억의 명곡을 야외에서 선보인다.



상상실현페스티벌

신진아티스트를 발굴해 소개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코자 기획된 '상상실현페스티벌' 이 10월 14일(토) KT&G상상마당 춘천에서 열린다. 장기하와 얼굴들, 혁오, 소란, 커피소년, 강산에, 솔루션즈, 잔나비, 멜로망스, 카더가든, 스텔라장, 박준하, 마리슈, 그_냥, 모던다락방, 밴드디스커버리 TOP2 트리스, 다브다가 출연한다. 낮1시부터 밤 10시까지. 관람료 3만원. 만7이상 가능. 예매 인터파크, 멜론티켓, 예스24. 문의 070-7586-0538

가을에 만나는
춘천인형극제



춘천인형극제 2017, 10.11~15

올해 29회를 맞은 춘천인형극제가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춘천인형극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극단 로기나래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와 꿈동이 인형극단의 '백설기' 등 국내 공식 초청작 11개 작품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해외 초청작 6개 작품, 그리고 일반 참가작 22개 작품이 5일간 무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이탈리아 극단, 극단 금설, 극단 인스의 성인을 위한 인형극도 마련됐다.

개막 첫 무대는 지난 두 달간 작업해 온 인형극아카데미 4기생의 '파파 마이 파파' . 11일 오후 8시 인형극장 야외무대 노을터에 오른다. 아버지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작품이다. 부대행사로는 뚝방마켓과 디자인마켓, 인형극워크숍,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예매는 검색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전화로 가능. 사전예약 시 10%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매년 8월에 열리던 인형극제는 지난해부터 가을로 옮겨 무더위를 피해 관객을 만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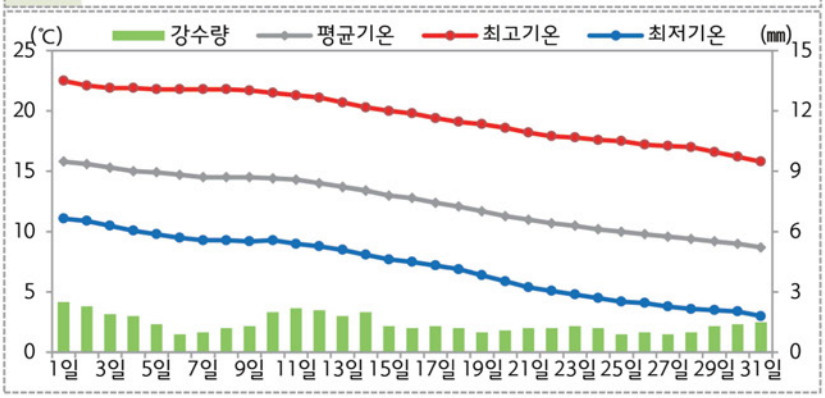
문의 242-8452

춘천시 10월 기후와 생활기상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 기후정보(평년값: 1981~2010)

평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12.5	19.6	7.1	44.3



※ 춘천시 우두동 소재 춘천ASOS (종관기상관측장비)자료

❖ 최근 10년간 특이기상

최고기온 최고 극값(2016. 10. 3.)

태풍 영향으로 덥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최고기온 **28.1℃** 기록

최저기온 최저 극값(2010. 10. 27.)

찬 대륙고기압과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최저기온 **-3.7℃** 기록

일강수량 최대 극값(2016. 10. 3.)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 강수량 **43.8㎜** 기록

❖ 강원도 국립공원 탐방로 단풍정보 미리 확인하고 즐겨요~ : '단풍실황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제공 화면>



▶ 매년 단풍철 **강원지방기상청**은 설악산 · 오대산 · 치악산 ·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공동으로 **강원도 내 국립공원**과 **대표 탐방로 7소**에 대한 **단풍실황정보**를 기상실황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풍실황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단풍 나들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http://gangwon.kma.go.kr) 홈페이지의 「강원도 국립공원 단풍실황정보」 배너

❖ 이 달의 관심 기상현상 : '안개'

▶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면 안개란 수상(물, 얼음, 수증기)에 의해서 수평시정이 1㎞ 미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안개는 구름과 발생과정이 비슷하지만, 그 차이는 밑 부분이 지표면에 접해 있으면 '안개', 떨어져 있으면 '구름'이라고 합니다. 안개는 공기 덩어리의 냉각, 수증기 공급원의 발생 원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됩니다.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5.4	2.4	2.9	2.4	1.7	0.8	2.4	1.6	2.8	7.8	7.3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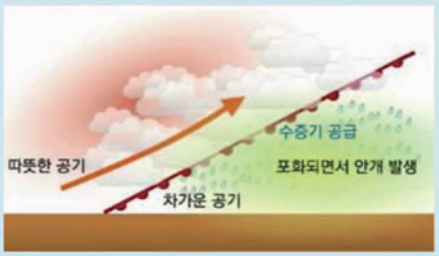
※ 춘천의 최근 10년 월별 안개일수 평균(2007년~2016년)



복사안개
: 내륙에서 주로 발생, 바람이 없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맑은 날 새벽에 발생



이류안개
: 찬 지표면이나 수면 위로 따뜻한 공기가 냉각되어 발생



전선안개
: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 부근 에서 빗방울이 증발하여 발생

본 내용은 춘천기상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ma093)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동네 날씨 관측관! 날씨제보앱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동네 날씨를 제보해 주세요.

춘천기상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장본1길 12
기상콜센터 전국 국번없이: ☎ 131

※ **명예기상관측관** 모집 중(신청서는 **강원지방기상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세요)

청탁금지법(일명 : 김영란법) 사례로 알아보아요!



Q 자치단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업소들로 이루어진 각종 협회 임원진들과 원활한 업무추진 및 협조관계로 간담회 개최 시 공직자가 식사 등을 협회로부터 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의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Q 국제무역전시회에서 참가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최자로부터 입장권을 구매 후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을 경우 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A 전시회 참가업체들이 주최자로부터 입장권을 구매 후 관련 기관에 배포한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 등이 제공받은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Q 국립OO대학교에서 △△학과 학생들 졸업작품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전공분야 산업체에서 협찬금을 지원하고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협찬금은 행사경비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학과명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A 전공분야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협찬금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640〉

일러스트 김태한



제27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

- ○ 춘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춘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춘천시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 가결
-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안) : 원안가결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촉구 건의문



이혜영
춘천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보육대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가슴 졸이면서 매년 반복해서 듣는 말입니다. 또한, 보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맞춤형 보육' 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도입해 재정이 빠듯한 정부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맞춤' 정책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학부모나 보육일선에 서 있는 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맞춤' 이 아니고 '후퇴' 입니다.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해 아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유아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을 받아선 안됩니다. 법과 현실은 다릅니다. 영유아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 시설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엔 예산과 정부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설립주체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무상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와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다니든 같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인 '표준보육료' 보다 적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 하는 데는 보육교사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등이 들어갑니다. 이를 고려해 표준

보육료라는 걸 산출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만 3세(우리나이 5세)의 표준보육료는 32만 4245원 이었습니다.현재 만 3세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금액은 22만원으로써 정부는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당연히 인상되어야 함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관련해 역대 최고 인상률(16.4%)이 적용됨으로써 운영비의 70~8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어린이집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부지원 부족으로 우리 유아들은 차별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국민혈세로 짓는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공립이 좋은 이유를 찾아서 모든 사립에 적용하면 모두 국공립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국공립 100% 달성에 대한민국 전체 유아가 차별에서 해방됩니다. 세금도 절약하고 국공립 확충도 초과달성하고 학부모 만족도 올라가고, 온 세상이 믿고 맡길만한 보육환경이 될 때 출산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질 높은 보육이 보장될 때 아이를 낳고 키울 희망이 있으며 그 희망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등하게 되자 최저임금 인상폭과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지원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몇 년 동안 급격한 임금인상분에 이미 부담능력을 상실한 어린이집의 실정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보육 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나, 차별 없는 보육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정책에 어린이집 교직원도 포함시켜라.
하나,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른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시켜라.
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

2017. 09. 11.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5분 자유 발언(요약)



박기영 의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트 투자선도 지구지정과 레고랜드에 관하여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국비 943억 등 총 3,651억이 투자되어 친환경 데이터센터, 첨단 농업 단지 등 물기업 특화 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 강원도 등 4개 기관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의 산단 원수 공급 방향과, 단지를 조성 후 소양댐 냉수를 에너지화해서 원수 사용방안 ,원수 공급 주체는 누가 되고 물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선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하며 지금부터 발 빠르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레고랜드는 2011년 최문순 강원 도정 역점사업으로 투자협의각서(MOA)가 체결되고 우리 춘천시에 동아시아 최초로 상, 하중도 일원 32만평에 총사업비 6,000여억 원을 투입 레고랜드 테마파크 설치를 계획하고 인허가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레고랜드 라는 초대형 개발 호재를 눈앞에 두고 현재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레고랜드는 제2의 알펜시아라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누구 한 명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최문순 강원도정은 레고랜드를 원점부터 재검토 하시어 한 치의 오점이 남지 않게 의혹을 해소 하시고 원활한 추진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올 내에 구체적인 결과가 없다면 춘천시민의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5분 자유 발언(요약)



박순자 의원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에 대하여

최근 2018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의 필요성이 지역 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그 중심에 춘천시가 꿋꿋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행스럽게 여기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문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영양충족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무상화 제도는 시급성을 더나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로컬푸드의 집중육성과 함께 학교 급식을 위한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를 국비확보를 통해 설치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 춘천시의 로컬푸드 공급지원센터는 춘천시에서 관리 주체가 되고 관내 7개 농협이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이원집정제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하여는 시민들과 당사자인 학교 측에서 크나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정책은 우리 농민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어렵게 시작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위험요소를 제거한 후 안전한 사업으로 운용하여 모든 시민이 감사하고 박수 받는 행정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연간 운영비 20여억 원은 손실이 아닌 농민들의 자립기반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손우철 의원

춘천고속도로 요금대폭인화 및 교통망 개선 촉구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요금을 대폭 인하, 현실화하고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 어느 30만 도시에 또한 어떤 수부도시에 이런 고속도로가 있는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춘천 시민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우롱할 수 있는지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창피하다 못해서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끓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지금의 춘천 고속도로 모습은 어떻습니까? 개통 전 일평균 차량운행 대수는 18만대에서 현재 25만대가 통행하고 있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정체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차바퀴를 본드로 도로에 붙여놓은 형국입니다. 이렇게 돼서 춘천시민의 삶과 춘천 경제 나아질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 서울 춘천 고속도로 사장은 첫째로, 춘천 경제와 춘천 발전의 가장 큰 적폐인 서울 춘천고속도로 요금인하 대책을 수립하여 즉각 시행하고, 둘째,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갓길을 확장 정비해서 3차선으로 운영 시행하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구체적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으면 춘천시민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과 저항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변관우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촉구

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법 개정 운동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과거 가난한 국가가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며 만든 불공평한 법입니다. 첫째, 최초 임대료 산정권을 임대사업자에게서 가칭 '임대료심의위원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연 5% 인상을 연 2.5% 범위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각종 특혜를 받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충분히 감면 사유가 있습니다. 셋째, 주거비 물가지수,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을 조사하여 임차인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임대사업자와 동등한 협상자료를 임차인 대표회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넷째, 임차인 대표회구성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임대차계약 현황에 관한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임차인의 민원을 더욱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의정 활동



2017.8.22. 춘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원규)는 회의를 열어 제274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하였다.



2017.8.22. 춘천시의회 부의장(황환주) 및 의원들은 춘천시청 을지훈련 상황실을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훈련에 참가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2017.9.1. 춘천시의회 내무위원회(위원장 한중일)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2017.9.1.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위원장 변관우)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2017. 9.7.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 했다.



2017.9.7.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15명은 춘천시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교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봄내골 소식



장학금 · 성금 · 나눔후원

● 신한은행 강원본부(본부장 경기정)은 '춘천인형극제2017'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9월 7일 후원금 1,000만원을 춘천인형극제(이사장 한기웅)에 전달했다.



● 신동면 의암리 주민 김은숙(이장), 남영호(국민대 교수), 남궁동복 등 3명은 9월 4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320만원을 기탁했다.



● 동춘천산업단지 입주기업 ㈜월드케미칼(대표 박재희)은 9월 7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강원봄내영상사업단(이사장 홍종임)은 8월 23일 춘천시 봄내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 강원경찰청(청장 최종헌) 직원 130명 238계좌(일시금 23만8,000원)의 '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전달식이 8월 29일 춘천시청에서 있었다.





음식후원 · 생신 · 물품후원

●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박란이)은 9월 13일 혜인정에서 100세 생신을 맞은 정홍묵 어르신을 위한 천수잔치를 열었다. 이번 잔치에서 모자이크어린이집 원아생들이 100세 생신을 맞으신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축하영상을 전달, 어르신의 흥을 한껏 돋웠다.



● 효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희) 및 행정복지센터는 8월 28일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에서 긴급생필품 포장봉사 및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긴급생필품은 관내 저소득층 60가구에게 전달됐다.



● 후평3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상순)와 은하수봉사단(단장 한진희)은 관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400여개의 빵을 8월 26일 홀몸 어르신 100여 가구에 전달하였다.

● SSN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회장 이준구)은 9월 5일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 음료, 천도복숭아, 초코파이 각 200개를 복지관 내 경로식당의 어르신들에게 후원하였다.



● 후평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문애란)는 8월 30일 관내 홀몸어르신 10명을 방문하여 복숭아(2kg) 10박스를 후원물품으로 전달하였다.



● 동양철학원(원장 한명수)은 9월 4일 근화동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백미 4kg 21포 및 과자 1박스(20만원 상당)를 근화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 유니클로와 함께하는 '착한바람 사랑나눔 시즌4' 후원품 전달식이 8월 22일 춘천동부

노인복지관에서 홀몸어르신 60명에게 후원품 세트를 지원하는 행사로 열렸다.



● 복날을 맞이하여 동면 지내1리 홍재춘 이장은 8월 11일 동면 도농교류센터에서 노인회 어르신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삼계탕 50인분을 제공하였으며, 김종혜 부녀회장과 회원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남면 사회복지봉사단(봉사단장 김희동)은 9월 11일 남면사무소에서 관내 저소득층 50명을 대상으로 반찬(불고기)과 김을 비롯한 부식을 나눠주는 행복나눔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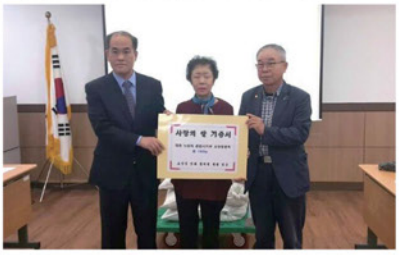
● 강남동사회복지봉사단(단장 이종수)은 9월 13일 봉사단원과 1:1 자매결연 맺은 홀몸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32가구에게 봉사단원이 정성껏 만든 반찬 4종류를 전달하였다.



● '근화동 사랑의 빵 나눔회'(회장 김순자)가 9월 4일 근화동주민센터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관내 경로당, 홀몸노인 등을 위해 일명 '근사빵'을 직접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소양동 방위협의회(회장 김원기)는 9월 14일 소양동 9개 경로당에 양곡(20kg) 각 1포대씩(총 50만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 후평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엄기옥)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이옥자)는 9월 18일 저소득가정에 쌀과 김치를 제공했다.



● 퇴계동 식당 흥부갈비(대표 배병열)는 9월 6일 지역 어르신 330여명에게 점심식사(갈비탕)를 대접했다.



● 춘천시평생학습관 홈베이커리반 제빵봉사단(강사 이현정)은 9월 7일 직접 만든 빵 100개를 소양동 아주봉사단(단장 이관선)에 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지역 저소득 계층에 전달했다.



● 석사동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장 박희순)는 9월 11일 지역 내 홀몸어르신 2가구를 방문하여 환경정비(청소), 이불 및 도배 · 장판 봉사활동을 펼쳤다. 9월 중순에는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약 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엄기옥)는 9월 15일 저소득가족 촬영사진을 대상자에게 전달했다.

● 근화동 사랑의 빵 나눔회(회장 김순자)와 자원봉사자는 8월 24일 직접 만든 빵을 지역 경로당에 전달했다.



● 동산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 춘천에너지는 8월 28일 춘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100만원 상당의 요가매트 및 교자상을 기부하였고, 복지관 전체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 교동 사회복지봉사단(단장 박남숙)과 행정복지센터는 8월 24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불세탁 지원을 위한 '복나누미 세탁소'를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다.





봉사·환경정화

● '형과아우봉사단' 은 8월 28일 애민보육원에 방문하여 40여명의 아동들을 위해 식사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형과아우봉사단' 은 춘천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대부분 요식업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효자봉사단(단장 이종수)은 8월 25일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17춘천레저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 후평3동 두드림 봉사단은 최근 고령화로 인한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청소상태가 열악한 가구와 조현병으로 인한 쓰레기강박장애 가구를 발굴하여 월1회 이상 위생상태가 열악한 가정의 청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후평1동 부녀회(회장 여정수)는 8월 23일 관내 저소득 2가구를 선정하여, 도배장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봉사는 부녀회에서 그동안 모은 회비를 통해 마련됐다.



● 후평2동 주민센터 직원과 365나눔사회복지봉사단(단장 박정임)은 9월 14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백세 장수사진 촬영 봉사를 실시하였다.



● 동면 월곡리(이장 안완헌) 마을주민 32명과 대일광업 직원 12명은 8월 19일 지속적인 폭우로 우거진 마을 하천 주변 일대 풀베기 작업 및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주선) 지역사회봉사단 소속 소리아카데미봉사단(단장 안필순)과 누리봄봉사단(단장 호나기)은 어르신과 소통하는 민요와 무용교차 공연을 통해 재능기부활동을 펼쳤다. 8월 22일 A+시니어복지센터에서 민요, 무용공연을 진행했고, 25일에는 아라봉 봉사단(단장 이윤정)이 어르신들께 식사봉사와 이벤트를 진행했다.



● 석사동사회복지봉사단(단장 왕선자)은 8월 30일 지역 내 홀몸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머리 염색 봉사활동을 펼쳤다.



● 춘천시평생학습관 스마일봉사단(단장 이신자)과 양사모봉사단(단장 이춘초) 단원들은 8월 23일 평생학습관에서 춘천시립도서관 개관식에 필요한 물품제작 봉사활동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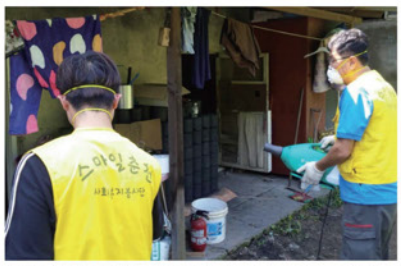
● 효자3동 두하골 봉사단(봉사단장 강금옥)은 8월 25일 효자3동 관내에 있는 청송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내외부 청소를 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근화동 미소지움아파트 통장 및 미사모(미소지움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과 경로당 회원 등 30명은 8월 26일 아침 6시부터 아파트 입구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을 함께하고 통장 및 미사모 회원들이 인근식당에서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께 아침식사를 대접하였다.



● 동면 사회복지봉사단(단장 박근순)은 9월 8일 전문업체와 함께 저소득 취약가구 방역 지원활동을 벌였다.



● 약사명동 통장협의회(회장 김명숙)는 9월 14일 약사천 일원과 소공원에서 추석맞이 마을환경 가꾸기(제초작업)를 했다.



● 근화동 통장협의회(회장 김순자)와 주민센터 직원들은 8월 29일 공지천~소양강스카이워크까지 2017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손님맞이 대청소를 했다.



● 신사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희순)는 9월 17일 신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이발봉사 활동을 펼쳤다.





행사·수상·기타

●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S-music 문화동행 콘서트' 작은음악회가 9월 12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춘천시 임시청사 체육관동에서 시청직원 100여명이 관람한 가운데 열렸다. 신한은행 시청출장소가 마련한 콘서트는 라임앙상블의 클래식 연주와 소프라노 윤민영의 독창으로 가을 낮의 여유를 선사했다.



● 소양동사회복지봉사단(단장 이관선) 단원 28명은 9월 6일 소양동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홍보물품을 배부하면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나영)에서는 9월 2일 봉의고등학교 청소년 봉사동아리 '다빈' 이 육림고개 프리마켓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사전에 프리마켓을 계획하고 판매할 물품과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였으며, 프리마켓을 통한 수익금 전액은 연말 연탄봉사활동 시 연탄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 '박사마을 어머니 합창단' 은 7월 26일 정선군에서 열린 제10회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춘천시 대표로 출전하여 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박란이)은 9월 7일 강원효장례식장 문화원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 춘천동부노인복지관 재개관 기념식이 9월 18일 운영법인인 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개문스님)를 비롯한 회원 어르신들, 주민, 최동용 시장, 이수홍 시노인회장, 이영신 관장, 시도의원 등 복지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KB국민은행 춘천지점의 후원금(300만원) 전달과 춘천로타리클럽의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연탄과 집고치기 지원에 대한 후원협약식도 진행되었다.



● 8월 30일 동내면 신촌리 지한식 농가에서는 약 6,000㎡ 규모의 논에서 춘천지역 첫 벼베기를 실시하였다. 지난 4월 29일 조생종인 오대벼를 심어 123일 만에 수확한 것이다.



●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엄기옥)는 9월 5일 저소득 가정을 후원하는 우리동네 사랑나눔 가게 6호점으로 '혜인정' (대표 심재희)을 선정했다. 혜인정은 지역 홀몸노인에게 식사 및 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강남동자율방범대(대장 박상조)가 강원지방경찰청 인증 '2017년 상반기 베스트 자율방범대'에 선정되어 9월 8일 기념 편판식을 가졌다.



●도예절교육 봉사단 양성교육' 수료식이 8월 16일 춘천동부노인복지관에서 열렸다.



● 효자2동 19통장 최춘옥 씨는 9월 5일 강원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강원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생명사랑지킴이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제15회 서면인의 날 행사가 9월 15일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야외공연장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춘천남부노인복지관(관장 박란이)과 강남동 예비군 동대(중대장 유대희)는 8월 25일 '민군 비전잇기' 프로젝트를 위한 자매 결연식을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문 사회복지사와 동대원들 간의 정기적인 1:1 멘토링을 통해 비전탐색을 지원한다.



●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나영)은 8월 17일~18일 15가구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힐링아트 캠프를 강원숲체험장으로 다녀왔다. 8월 23일에는 20여명의 어려운 가정 자녀들에게 '제과제빵 체험'을 통해 건전한 여가학습을 실시하고 스스로 만든 빵을 간식으로 제공하였다.





시민제보

새로 깐 보도블록 내려 앉아

중앙로타리에서 춘천역 방향에 새로 깐 보도블록이 내려앉아 보행자 사고위험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각종 공구와 기계가 인도에 나와 있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박경훈 (서부대성로)



알림 마당

강습·교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조운동〉

▫ 접수기간 : 9.18~9.29(선착순)
▫ 수강기간 : 10월~12월
▫ 수강료 : 3개월분 선납 3만원(단, 라인댄스와 노래교실은 4만5천원)
▫ 수강료 감면 : 100% 감면(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등록장애인), 50% 감면(만65세 이상)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관련증빙 지참.
▫ 신청안내 : □주민센터 방문 접수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접수 □개인도구 및 실습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수강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 문의 : 조운동주민센터(☎245-5587)

프로그램	운영일정		정원(명)
하모니카	월	10:00~12:00	25
리코더	월	14:00~16:00	25
국학기공	월,수	10:00~11:30	25
라인댄스	월,수	14:00~16:00	20
노래교실	화,금	14:00~16:00	30

한림대박물관 교육프로그램
2017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마을지기, 봄내를 부탁해〉 4기(*참가비 무료)

▫ 교육기간 : 10.14~11.25(매주 토, 10~13시)
▫ 교육대상 : 초등 3~5학년(선착순 20명, 취약계층 자녀 우선 선발)
▫ 교육장소 : 한림대학교박물관, 봉의산 인근 문화유적
▫ 교육내용 : 봄내 마을지기 아지트 만들기, 봄내 보물찾기, 봄내 마을 만들기, 외바퀴수레만들기놀이, 봉의산성쌓기놀이, 벅수만들기, 나만의 탈 만들기, 봄내 마을지기 잔치
▫ 교육정보 및 접수방법 : 홈페이지 museum.hallym.ac.kr, 선착순 접수
▫ 문의 : 한림대학교박물관(☎248-285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e-커머스 및 마케팅' 10월 무료 교육

▫ 대상 : 도내 중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청년, 일반시민
▫ 일시 : 2017. 10월~
▫ 장소 : 춘천시 동면 장학리 1007-7, 청일빌딩 3층
▫ 교육내용 : ▷고객만족서비스관리-CS교육(10.12) ▷모바일 홈페이지 만들기 제작교육(10.16) ▷네이버에 내가게 만들기 심화교육(10.18) ▷G마켓, 옥션에 내가게 만들기(10.19,20일) ▷온라인 마케팅 종합교육(10.21,22,28,29일) ▷모바일 홈페이지 활용하기(10.26) ▷동영상 제작교육(10.31)
▫ 접수 : 중소상공인 강원희망센터 홈페이지 접수 ☞ gangwonheemang.modoo.at
▫ 문의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중소상공인 강원희망센터(☎244-5892~3)

시민과 함께하는 10월 인문학 무료강좌

▫ 장소 :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108호
▫ 대상 : 시민 누구나
▫ 문의 : 강원대 시민인문교육센터(☎250-8106)

일 자	프로그램	
10월 11일(수)	주제	로시니 〈기욤 텔〉
	강사	김종로 교수
	시간	저녁 6시~9시
10월 18일(수)	주제	행복한 미술관 '빛으로 바로크를 열다' -카라바조-
	강사	'김영운 교수
	시간	저녁 7시~9시
10월 25일(수)	주제	로시니 〈오델로〉
	강사	김종로 교수
	시간	저녁 6시~9시

친환경EM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 대상 : 강원도민
▫ 접수일시 : 9.18~10.12
▫ 교육일시 : 10.16~10.20 ▫ 장소 : 춘천YWCA
▫ 교육내용 : EM생필품, EM천연화장품 제조
▫ 문의 : 춘천YWCA(☎254-4878)

춘천인문학교 하반기 강좌(10월~12월)
'미니멀 라이프' 를 주제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모색

▫ 장소 : G1강원민방 강당
▫ 참가신청 및 문의 : (사)문화커뮤니티 금토(☎251-9362)

프로그램	강의주제	강사
10.17(화) 오후7시	남도 풍류의 삶	오근선 마승미 (해남 설아다원대표)
11.21(화) 오후7시	최소의 건축	정영한 (스튜디오 아키홀릭 소장)
12.19(화) 오후7시	흥부처럼 먹는 식단	임낙경 (화천 시골교회 목사)

2017년 청춘(靑春) 인문학 두 번째 이야기

▫ 장소 : 춘천동부노인복지관 2층 사회교육 4실
▫ 일정 : 10.10~12.12(매주 화요일)
▫ 대상 : 만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웰-다잉' 인문학
▫ 문의 : 춘천동부노인복지관(☎255-8866)

농사랑 알리미 로컬푸드 요리교실

▫ 대상 : 시민 누구나(무료)
▫ 일시 : 10.16(월) 10:00~12:00
▫ 장소 : 강원도 농업기술원

▫ 교육내용 : 메밀 채소 말이 / 단호박 식혜
▫ 문의 : 춘천지역 농사랑알리미 교육강사(010-8798-3426)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10월 미디어 무료체험

▫ 대상 : 도민 누구나
▫ 일시 : 10월 월~토, 10시~12시/14시~16시/16시~18시(선택 가능)
▫ 장소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240-2314)

프로그램명	체험 대상	프로그램 내용
꼼지락뉴스	초중고 단체, 일반,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신청 가능	뉴스 제작 체험
		사운드 제작 체험
폴리폴리		영상제작을 통한 가상현실 체험
VR체험		
무지개뉴스	초등학교 저학년	놀이체험을 결합한 뉴스 제작 체험
무지개TV	미취학 아동	(화천 크로마키를 이용한 종합 놀이 체험 프로그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10월 상설미디어 무료교육

▫ 대상 : 도민 누구나
▫ 장소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 접수 :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240-2321)

프로그램명	일시	프로그램 내용
영상 제작 기초	10.11~10.27(수,금) 19:00~21:00	영상 기획, 촬영, 편집 (센터 내 장비 활용)
1인 방송 제작	10.14~11.4(토) 13:00~17:00	1인 방송의 이해와 실전 (센터 내 스튜디오 활용)
드론 촬영	10.24~11.02(화,목) 1 · 4차시: 13:00~15:00 2 · 3차시: 13:00~17:00	드론 비행과 항공촬영 (센터 내 드론 활용)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프로그램

▫ 학생드럼 : ▷초중고급/개강 11.4/토 13~21시(2시간 기준)/수강료 8주 8만원
▫ 성인드럼 : ▷초중급/개강 10.12/목 19~21시/수강료 8주 9만원 ▷고급/개강 11.7/화 18~22시/수강료 8주 9만원 ▷전문가반/개강 10.18/수 19~21시/수강료 8주 학생 10만원, 성인 12만원
▫ 해금 : 개강 10.24/화 19~20시/청소년 · 성인/수강료 4주 7만원
▫ 통기타 : ▷초중급/개강 10.14/토 13~15시(중급), 15~17시(초급)/청소년 · 성인/수강료 8주 8만원
▫ 문의 : ☎251-1318, www.cc1318.or.kr

국립춘천박물관 10월 프로그램

※ 전시가 잠시 쉽니다! 새로운 국립춘천박물관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

▫ 2차 휴실기간 : 10월 2일 ~ 10월 29일(28일간)
▫ 상설전시실 재개관(10월31일 예정)으로 전시실을 휴실합니다. ▫ *정상운영 : 문화행사, 어린이문화사랑방, 교육프로그램 등

구분	제목	일시	대상	내용
전시	다시 만나는 국립춘천박물관	2017.10.31.~ 상시	모든 시민	개관 후 15년 간 축적된 강원 문화유산을 새롭게 선보이는 재개관 전시(강원의 역사 문화실)
				문의 ▶ 안내데스크(260-1500)
문화 행사	한가위 우리문화 한마당	9.30(토)~10.3(화) 10.5(목)~10.9(월)	관람객 누구나	– 전통놀이 · 사물놀이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중앙광장) – 특선영화상영(15시/강당)
	'독일연가곡시리즈 말러&슈만'	10.28(토) 17시	관람객 누구나	토요야간개장 음악회 '독일연가곡시리즈 말러&슈만'
	박물관 영화관	토, 일, 공휴일 15시	관람객 누구나	무료 영화 상영(강당)
				문의▶행사팀(260-1517,1555)
교육 및 체험	역사를 품은 토요박물관	10.14, 10.28(토) 10시~12시	어린이 및 동반가족	– 누리집(교육>가족 탭)에서 해당 날짜 한 달 전부터 참여 신청 가능 *유선상 참여 신청 불가
	자유학년제 중학생을 위한 박물관에서 상상날개 달기	매주 화~금 10시/ 13시	강원도내 중학교 1학년 단체	– 특강형 / 투어 체험형 등 참가 대상별 맞춤형 인문학 기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선택 참여 가능)
	제12기 박물관문화대학	매주 목요일 10시~12시	일반 시민, 수강생 등	– "미래, 곧 다가올 역사" 주제의 총 15강좌 – 일반시민 청강 가능
	새싹들의 박물관 나들이	화~금 10시~12시	초등학교 단체	– 대상별 맞춤형 선택 체험 교육프로그램 제공 (선사인의 오곡 액자, 광섬유 모란꽃 만들기 등 다수) – 체험 신청 ▶교육팀(260-1532,1591) – 세부 내용 ▶누리집에서 확인
	사랑박물관 희망박물관		복지시설 단체	
	지구촌 박물관 가족		외국인 · 다문화가정	
	박물관 병영문화학교	화~금 14시~17시	군장병 · 군가족 단체	
	어린이 문화 사랑방	화~일 10시~17시	영 · 유아 미취학 아동	8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속 감성 놀이터
				문의▶교육팀(260-1522,1528)
*국립춘천박물관 프로그램은 전부 <무료>입니다.				
*상세 일정은 국립춘천박물관 누리집 참조 http://chuncheon.museum.go.kr/html/kr/				

춘천예총 10월 행사 프로그램

□ 문의 : 춘천예총(☎243-4360)

춘천예총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구분	제목	장소	일시	
전시	렌즈멋 사진전시	아트플라자 갤러리	10.13(금)~10.17(일)	춘천 동아리 사진전
	이수환 개인전		10.19(목)~10.22(일)	사진 개인전
	서예전시		10.27(토)~10.31(화)	후평1동 한문 서예반 작품전시
	춘천여성미술작가회전	춘천미술관	9.29(금)~10.05(목)	'맛있는 Story 멋 展' 을 주제로 작품전시
	아트원 회원전		10.13(금)~10.19(목)	'삶의 현장-춘천의 재래시장을 가다'를 주제로 작품전시
	춘천 뿌리전		10.20(금)~10.26(목)	'원로회원 2인의 사적(아카이브)과 함께'하는 작품전
	갈경용 개인전		10.27(금)~11.02(화)	갈경용 산수화전 제1 전시실
	박태원 개인전			박태원 개인전 제2 전시실
문화행사	2017 사람책 콘서트	봄내극장	10.26(목)오전10시	최종원 – 탤런트/영화배우/전 국회의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연극공연 "부치지않은 편지"		10.26(목)~27(금) 오후8시 28(토)~29(일) 오후3,7시	역사 바로 알기 프로젝트로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을 광주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의 이야기
	마당극 "달꽃만발"	번개야시장	10. 14(토) 오후8시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을 뮤지컬 마당극으로 각색한 작품
교육	노래교실	봄내극장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항시 수강신청 접수 가능 (유료)

모집 · 신청 · 구인

춘천YWCA 합창단 재창단 단원모집

□ 대상 : 노래를 사랑하는 여성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 춘천YWCA 4층 강당
□ 문의 : 010-8796-7033

꽃꽂이 기초 및 성전 꽃꽂이반 모집

□ 강사 : 이현정 꽃 예술작가(한국 꽃 예술작가협회 현 정회 회장)
□ 대상 : 강원도민
□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4:30
□ 장소 : 춘천YWCA 2층 강의실
□ 문의 : 254-4878

2018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도내 유일의 국립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지원자격 : 주민등록지가 춘천시(읍면 포함)인 취학적령 어린이
□ 원서교부 및 접수 : 10.23(월)~11.3(금), 행정실
□ 모집인원 : 남자 36명, 여자 36명(특별전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추첨일시 및 장소 : 11.10(금), 달별솔관
□ 참고 · 문의 : 홈페이지(www.cnue-e.gwe.es.kr) 및 교무실(☎254-225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프로그램명 : 애들아! 아침밥먹자(봉사시간 부여), 청소년응급구조 '심장이 뛴다' (봉사시간 부여)
□ 모집기간, 모집대상, 참가비, 교육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신청방법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인증프로그램 신청서다운 후→작성→E-mail(cc1318@hanmail.net) 또는 팩스접수(251-1372)
□ 문의 : 자세한 사항으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바람
☎251-1318, www.cc1318.or.kr

청소년체험학습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역사체험활동 '괴나리봇짐']

□ 대상 : 초등 3~6학년(선착순 40명)
□ 기간 : 10.14(토) / 10.21(토)
□ 장소 : 몽촌역사관, 한성백제박물관 / 오죽헌, 허난설헌 생가
□ 참가비 : 1인 3만원(체험활동비/식비포함)
□ 문의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251-1318)

[직업체험활동 '꿈을그리는청소년']

□ 대상 : 초등 3~6학년(선착순 40명)
□ 기간 : 2017.10.28.(토) / 2017. 11.04.(토)
□ 장소 : 광나루 안전체험관 / 한국잡월드
□ 참가비 : 1인 4만원(체험활동비/식비포함)
□ 문의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251-1318)

춘천그린악단 모집

□ 모집시기 : 분기별 또는 수시 모집(초보자 환영)
가. 분기별 :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 남부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에 접수
나. 수시모집 : 동아리는 회장에게 접수
□ 문의 : 박명상(010-2471-5638)

프로그램	운영일정		장소	모집시기
하모니카	월	09:30~11:30	조운동주민자치센터	분기별
리코더	월	13:00~15:00	조운동주민자치센터	분기별
하모니카	화	10:00~12:00	퇴계동주민자치센터	분기별
	목	13:30~15:30		
하모니카	화,금	13:00~14:30	남부노인복지관 (301호)	7월말 12월말
리코더	화,금	15:00~16:30	남부노인복지관 (301호)	7월말 12월말
오카리나	토	09:30~11:30	남부노인복지관 (301호)	수시 (동아리)
춘천그린악단 아코디언/키보드	목,금	10:00~12:00	퇴계동주민자치센터	분기별

내일배움카드제 수강생 모집(실업자, 재직자, 일반)

□ 구직자 의류제작 양성과정(오전) 10.16~내년1.19
□ 구직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과정(오후) 10.16~내년1.5
□ 일식조리기능사 자격증과정(주말) 10.14~내년1.27
□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주말) 10.21~11.25
□ 엑셀&파워포인트 실무과정(야간) 10.16~11.14
□ 전산회계 2급 자격증 과정(야간) 10.16~11.28
□ 구직자 전산경리 실무(오전,오후) 10.16~12.12
□ 홈페이지 : www.ccwomen.or.kr
□ 문의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243-6474)

재취업 희망5일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 내용 : 취업을 하기 전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국비지원 프로그램
□ 일정 : 월2회 진행예정
□ 교육시간 : 9시30분~1시30분(월~금, 일4시간, 총20시간)
□ 특전 : 80%이상 참여 시 수료, 수료 후 취업지원 및 무료 직업교육훈련, 새일인턴지원 대상자
□ 접수방법 : 방문접수(수시접수, 반명함 사진1매)
□ 홈페이지 : www.ccwomen.or.kr
□ 문의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243-6474)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 모집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남,녀(만18세~69세)
□ 내용 : 단계별 취업지원, 진로지도에서 취업지원까지 전담상담사의 1:1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 특전 : 참여수당, 직업훈련 수당, 집중취업지원(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청년층 특혜 :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자격+3단계 구직활동지원수당(30만원×3개월)
□ 홈페이지 : www.ccwomen.or.kr

희망키움통장II 4차 모집

□ 모집대상 :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826,466	1,407,225	1,820,458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233,690	2,646,923	3,060,156

□ 사업내용: (3년만기)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계속 하면서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장려금 10만원 지원
□ 모집기간 : 10.2~10.13 *11월까지 소득조사, 12월 초 결과 통보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필요서류 : 근로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 · 임금확인서 등)
□ 문의 : 춘천시 복지정책과(☎250-3379) 강원도광역자활센터(☎244-0290)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모집 안내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음악치료 이용]

□ 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시간 : 월~금, 9:00~12:00(시간조정가능)
□ 내용 : 음악치료(바우처) □ 문의 : ☎262-0152

[도예체험활동]

□ 대상 : 지역주민(만6세 이상~)
□ 인원 : 회기당 2명~12명(단체)
□ 참가비 : 지역주민(최소 2명~최대15명/단체 환영), 체험비 1만2천원(1인 1점 기준) □ 문의 : ☎262-0035

[탁구 동호회 성인장애인 회원모집]

□ 대상 : 탁구활동이 가능한 성인 신체장애인
□ 내용 : 주2회 탁구, 월1회 평가회의, 연3회 대회출전
□ 장소 : 본관 3층 집단활동실
□ 문의 : ☎262-0035

원예치료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 참여자 모집

□ 일시 : 9.11~11.6(월,수/14~16시)
□ 접수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내방 및 유선접수
□ 대상 : 60세 이상 우울감을 느끼는 어르신 15명
□ 내용 : 어르신들의 우울증 감소를 위한 원예치료 활동
□ 담당자 :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241-5600)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 교육기간 : 10.12~11.23(매주 목 10~12시)
□ 장소 : 봄내극장
□ 대상 : 노래를 좋아하는 분
□ 강사 : 춘천연예예술인협회장 김경일 외
□ 수강료 : 1개월(1만5천원)
□ 문의 : 춘천예총(☎243-4360)

월드비전 익투스 여성합창단원 모집

□ 대상 : 20~60세 음악을 사랑하는 기독교인 누구나
□ 일시 : 상시모집
□ 장소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강당
□ 교육내용 : 합창연주 및 정기공연, 찬조공연 연습
□ 문의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254-7244)

고령자인재은행 구인구직 알선

□ 고령자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직업적응훈련 및 직장소양교육, 인턴연계
□ 대상 : 만50세 이상 구직자 및 채용업체
□ 문의 : 춘천YWCA(☎254-4878)

2017년 고령자 고용기업 지원

□ 지원형태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제조업체에 최대 2명까지 인건비의 일부(월6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함
□ 참여업체 : 춘천시 소재 제조업체
□ 참여자 : 만 55세이상 구직자
□ 문의 : 춘천YWCA(☎254-4878)

행사 · 나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KBS 가요무대 춘천 특집편〉 녹화 방송



▫ 일시 : 10.14(토) 19시~21시
▫ 장소 : 삼천동 중도주차장
▫ 출연진 : 박재란, 하춘화, 혜은이, 최진희, 조항조, 배일호, 문희옥, 김용임, 박상철, 이혜리, 서지오, 조정민, 박혜신, 송가인, 인치엘로
▫ 관람방법 : 방청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시청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초대장을 교부받아 지참하고 선착순 입장
♣유의사항 : 저녁에 녹화가 진행되는 관계로 날씨가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니 보온의류 준비하여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춘천시 총무과(☎250-3824)

제이드가든 가을 야간개장 '빛의정원' 상시 오픈

▫ 장소 : 제이드가든 수목원(남산면 햇골길 80)
▫ 기간 : 9월 주말, 10월 한 달 내내
▫ 시 간 : 09시~22시까지
▫ 문의 : ☎260-8330(www.jadegarden.kr)

2017 춘천시 금옥길 달빛걷기대회

▫ 일시 : 10.13(금) 19시~23시
▫ 장소 : 동면 금옥길 일대(집결:제2주차장)
▫ 참가대상 : 춘천시민 및 외부관광객
▫ 내용 : 떡메치기체험, 금옥골 지역 특산품 부스 운영, 스카이레저, 길놀이, 그 빵집 빵 시식부스, 달빛걷기, 행운뽑기, 마술 및 밴드공연 등
▫ 주최 : 춘천시 동면 월곡리 / ㈜옥산가
▫ 참가신청 및 접수 : 사전예약 (~10.10 까지)
-이메일 daeilmining@naver.com
-팩스접수 033-242-4612
-홈페이지 http://www.oksanga.com 행사내용 팝업창에서 양식다운 후 이메일 접수
- 현장방문신청 당일 (10.13) 오후 6시 까지 제출

2017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당구대회

▫ 신청기간 : 9.11~10.15
▫ 대회기간 : 10.21~10.22
▫ 장소 : 춘천시장애인스포츠센터
▫ 참가선수단 : 약 150 명
▫ 대상 : 장애인, 비장애인(강원도 거주자) 당구 동호인
▫ 기타사항 : 대회 출전 개인장비(큐, 쵸크, 등 개인물품)는 가급적 개인이 준비한다. 음주 출전 적발 즉시 실격 패 처리한다. 이외의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경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신청문의 :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부회장(010-3003-6789) 사무국장(010-6373-0204)

학부모특강

▫ 내용 : 30년 후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 강사 : 정광필(전 이우학교 교장, SBS '바람의 학교' 교장)
▫ 대상 :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님
▫ 일시 : 10.21(토) 10:30~12:30
▫ 장소 : 전인고등학교 1층 세미나실
▫ 문의 : ☎261-3414

전인고등학교 입학설명회

▫ 대상 : 중학생 자녀 학부모로서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 누구나
▫ 일시 : 9.30(토) 13~16시, 10.21(토) 13~16시, 11.4(토) 13~16시 중 택1
▫ 장소 : 전인고등학교 1층 세미나실
▫ 내용 : 전인고등학교 학교 운영계획과 교육과정 안내 및 재학생과의 간담회
▫ 문의 : 입학담당자(☎261-3414)

春1000인 천원나눔 범시민운동 안내

▫ 후원방법 : 기부자의 신청을 통해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 약정하신 기부금을 본인계좌에서 출금하는 정기후원 모금사업입니다.
▫ 후원금액 : 1인 매월 1,000원부터 참여가능
▫ 세제혜택 :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단체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춘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춘천시복지위원협의회, 춘천시복지이 · 통장협의회, 춘천시사회복지봉사단협의회
▫ 문의 : ☎250-4184

건강 · 복지

강원대학교병원 당뇨병 교육

▫ 기간 : 매주 수요일 11시~12시
▫ 대상 : 당뇨병에 관심 있는 환자 및 보호자
▫ 강사 : 내분비내과 교수 및 당뇨병 교육팀
▫ 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층 지역네트워크실
▫ 문의 : 당뇨병교육실(☎258-2206)

치매 시민무료강좌 '치매 알아가기'

▫ 대상 : 치매에 대해 궁금하신 분 누구나
▫ 교육일시 : 10.24(화) 10:30~12:00
▫ 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2층 지역네트워크실
▫ 교육내용 : 치매 개념, 치매환자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서비스
▫ 문의 : 강원도광역치매센터 자원연계팀(☎257-9165)

폐암검진 시범사업 안내

▫ 대상자 선정 나이 : 55~74세
▫ 대상자 흡연력 :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흡연자 또는 금연한지 15년 이하 과거 흡연자 〈* 갑년이란? 갑씩×년간=갑년〉
▫ 제외대상 : 폐암관련(폐암진단 받고 치료중인 자, 일상생활이나 거

동이 어려운 상태인 자, 결핵 또는 폐렴 및 간질성 폐질환으로 치료 중인 자),기타(5년 이내 암진단을 받은자, 6개월 이내 흉부CT 검사를 받은 자)

□ 선정방법 : 2017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또는 금연클리닉을 통해 대상자 선정

□ 검진방법 : 저선량 흉부 CT

□ 검진효과 : 폐암 조기발견 및 사망률 감소

□ 비용 : CT비용 무료(이상소견발견 시 추후 검사비는 본인부담)

□ 검진예약 및 문의 :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금연클리닉 (☎258-9362, 2383)

'마음공감 행복나누기' 정신건강교육

□ 일시 : 10.25(수) 13시20분~14시20분

□ 주제 : 마음공감(가족으로서의 행복한 생활)

□ 강사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장소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2층 강당

□ 대상 : 춘천시민, 정신질환자 및 가족, 유관기관 실무자

□ 교육내용 : 가족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 등

□ 문의 :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행복누리팀(☎244-7574)

이명치료 임상연구 지원자 모집

□ 대상 : 만 18~70세 남녀(최소 3개월 이전에 발생한 만성이명을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이상 이명이 지속되고 양측 귀에 난청이 있는 경우)

□ 연구내용 : 이명 치료 목적으로 보청기를 3개월 착용하고, 선별검사를 포함하여 6개월간 총 6회 방문

□ 장소 : 강원대학교 병원 본관 2층 이비인후과

□ 참여혜택 : 이명 치료에 필요한 청력 및 이명 검사 무상 제공, 이명 치료를 위한 보청기 무상대여 (3개월 또는 해당시 장기 무상 대여), 별도의 추가 교통비 제공(10만원)

□ 문의 : 강원대학교 이비인후과 연구책임자 남의철 교수
담당자 김연하 연구원(010-6710-4213)

난청,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

□ 난청으로 잘 듣지 못하는 분에게 무료로 도움을 드립니다.

□ 시간 예약을 미리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 문의 및 봉사처 : 강원선우회(☎261-7005), 010-9235-7513(회장)

행정·기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확인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확인
□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설치 후 확인
□ 문의 :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실(☎250-3264)

2017년 춘천시 재정공시(2016 회계연도결산)

◈ 우리 시의 2016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내부거래 등)는 1조3,652억원으로, 전년대비 7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47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5만5,000원입니다.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6,507억원입니다.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672억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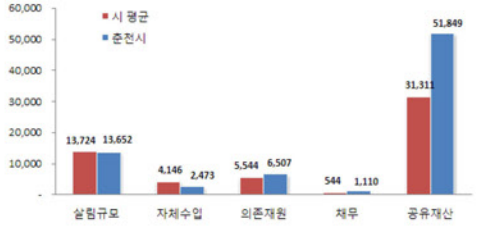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1,11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39만6,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16년도에 1,692건(2,271억원)을 취득하고, 920건(690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조1,849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시 – (2)

동종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 억원)



◈우리 시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조3,724억원) 보다 73억원 적습니다.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46억원)보다 1,672억원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544억원)보다 962억원 많습니다.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44억원)보다 566억원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6만7,000원)보다 22만9,000원 많습니다.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조1,311억원)과 비교하여 2조537억원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자체수입이 적고 이전재원이 많아 자체수입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채무액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춘천시청>행정정보>춘천시 살림>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예산과 신현우(☎250-3174)〉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전년도(2016년) 혼인하고 아내 연령이 만 44세 이하(72년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부부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가구

※ 단, 국제결혼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결혼한 가구만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2017.10.23(월)~11.17(금)

□ 사업내용 : 가구 특성 및 소득에 따른 주거유지비용 지원(최초 선정년도부터 3년)

□ 신청장소 : 아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아내가 타 시도 거주시 남편 주소지에 신청)

□ 구비서류

☐ (아내신청)주민등록표 1부 /주소변동 포함
☐ (아내전입) ⇒ 주민등록 초본 포함
☐ (남편신청)주민등록표 1부, 부부의 초본 각 1부
☐ 수급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대상) 각 1부
※ 아내 · 남편 · 직계비속 각 1부 제출
☐ 수급자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수급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소득기준자료 (2인기준)

단위 : 천원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소득금액	지원액 (매월)	비고
행	100%이하	~ 2,814	120	–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제외
복	100%초과 ~ 150%이하	2,815 ~ 4,222	80	
한	150%초과 ~ 200%이하	4,223 ~ 5,628	50	
덤	아내가 타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 추가지원		20	

□ 유의사항 : 신청기간에 신청이 누락된 가구는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년도 신청가능. 단, 지원기간 3년 중 누락기간은 제외하고 잔여기간만 지급.

□ 문의 : 춘천시 건축과(☎250-4199)

2017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변경 안내

□ 시행일 : 2017. 8. 1

□ 지원대상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 지원내용 : ▷고등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특성화고 제외, 장학금 지원이나 학자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 제외) ▷대학등록금 : 1인/1회 , 1학년1학기 기준, 100만원 한도 내(국가기관, 한국장학재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신청자 :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처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주요 변경 사항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확대,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 대학등록금 추가 신청서 접수 : 9. 1(금)부터~ 〈수시접수〉

□ 문의 : 춘천시 출산보육과(☎250-4401)

9.29(금) 춘천시 구인 · 구직만남의 날 참여업체

□ 문의 : 춘천시 일자리지원센터(☎250-3782/4434) ※오후2시 임시청사 체육관동

업체명	모집직종	모집 인원	성별 · 학력 및 경력	근무시간	급여	제출서류	기타
유니에스	식음파트	4	무관(20~30세)	주6일 09:00~18:00 야간개장 13:00~22:00	월170만원	이력서	명절선물, 경조비지원 등
	매표,검표,판매 파트		무관(20~30세)		월170만원		
	내부환경(미화) 파트		무관(50~60세)		월165만원		
㈜대일광업	갱내채광보조/채광기사	6	남자	주5일, 2교대 08:00~17:00 17:00~02:00	월230만/월300만 상여금300%	이력서	기숙사, 중식제공
하나카드 춘천센터	텔레마케터	5	무관(25~50세)	주5일 09:30~18:00	월200만원	이력서	정규직
	사무직	1	고졸이상, 여자 (20~35세)	주5일 08:30~18:00	월150만원		
교원웰스	웰스매니저 (방문관리서비스)	3	여자(50세미만)	주5일 자유근무	월150~180만원	이력서	정규직
㈜베베쿡	생산직 (조리, 전처리, 포장)	2	남자 (40대 이하)	주6일 (토요일휴무) 07:00~15:00	월170만원	이력서	정규직 중식제공
블루마운틴	식음팀(식음서비스)	5	무관(40세 이하)	주5일(토요일격주근무) 일9시간근무, 2교대	연2,300만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중식제공, 기숙사, 통근버스
	프론트 (안내, 회원관리, 정산)	2	무관(30대 이하)				
	예약실(골프장 예약)	1	무관(30대 이하)				
㈜한국고용정보	텔레마케터(인바운드)	10	고졸이상 20~45세	주5일 09:00~18:00	월180만원	이력서	기숙사,사내식당, 직장인어린이집 등
	텔레마케터(아웃바운드)	5			월170만원		
	회원가입심사원(서류심사)	10			월150만원		
㈜삼구에프에스	생산직	10	무관	주6일 09:00~18:00 18:00~03:00	월136만원	이력서	중식제공, 통근버스

2017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195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기관 및 일정 : 9.26(화)~11.15(수)(보건소는 약품 소진시까지)

▶민간위탁의료기관(87개소)

– 75세 이상(42.12.31. 이전 출생자) : 2017.9.26.(화) ~

– 65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자) : 2017.10.12.(목) ~

▶보건소(1개소)

– 65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자) : 10.10.(화) ~

– 취약계층 대상자 : 10.16.(월) ~ *취약계층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본인) 사회복지시설거주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단, 만 7세이상 춘천시민만 가능)

▶보건지소 및 진료소(23개소) : 별도계획 수립 후 자체 실시 예정

□ 기타사항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 및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 접종 방문 시 신분증 및 해당 자격 증명서 반드시 지참

□ 문의 : 춘천시보건소 예방접종실(☎250–3694, 4600~3)

□ 보건소 접종 일정 : 10.10(화) ~ 약품 소진 시 까지

구분	접종일정	접종장소	비고
65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자)	10.10(화)~	시민복지회관 지하 1층 (보건소 옆)	*접종시간 : 9시~16시 *점심시간 : 12시~13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본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만 7세이상 시민)	10.16(월)~		
동면 외 8개면(신북읍포함)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자체 일정 ⇒ 10월~11월중			

□ 2017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의료기관 현황(87개소)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033–251–3500
SC알통의원	033–263–7218
강원대학교병원	033–258–2000
강원도재활병원	033–248–7700
고려비뇨기과의원	033–242–7580
고석연가정의학과의원	033–254–0121
구철회내과의원	033–244–3500
굿모닝의원	033–251–9479
권재활의학과의원	033–244–3465
그랜드연합의원	033–255–6470
김내과의원	033–252–7595
김도훈재활의학과의원	033–253–6606
김병렬내과의원	033–252–5248
김정배이비인후과의원	033–255–7575
김진봉내과의원	033–241–7582
김호준외과의원	033–251–0129
누가이비인후과의원	033–263–7544
누누베베소아과의원	033–254–2266
다나신경외과의원	033–253–6700
다나연세의원	033–253–6701
다사랑의원	033–244–8275
두리의원	033–263–7582
리온재활의학과의원	033–241–3322
명석진내과의원	033–263–0938
미래산부인과의원	033–241–7677
민병철내과의원	033–251–8242
박관영정형외과의원	033–260–4800
배재천신경과의원	033–261–3710
복십자의원	033–254–2056
봄내사랑의원	033–253–9510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사랑마취통증의학과의원	033–242–7516
삼성연합의원	033–264–5577
서울아산내과의원	033–243–0826
서울의원	033–263–7658
서울진마취통증의학과의원	033–244–7786
석사성모의원	033–263–4589
성심의원	033–262–3114
세중힐링의원	033–244–5755
송이비인후과의원	033–244–7550
심소아청소년과의원	033–264–0369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033–244–7800
안정효내과의원	033–262–9889
연세강이비인후과의원	033–243–0815
연세이상무신경과의원	033–252–9606
연세통증의학과의원	033–243–0153
영인의원	033–256–5688
온세의원	033–252–7660
우리소아과의원	033–263–9502
윤덕형내과의원	033–264–9897
윤동석내과의원	033–263–7524
윤화준소아청소년과의원	033–262–8275
의료법인 강남의료재단강남병원	033–240–7000
이봉휘내과의원	033–242–4020
이승훈내과의원	033–253–5118
이영순내과의원	033–263–3007
이정열내과의원	033–243–7659
이&신 소아청소년과의원	033–263–2255
인구보건복지협회강원지회 가족보건의원	033–260–8900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임정근내과의원	033–244–3900
전창호내과의원	033–254–9119
정봉기내과의원	033–241–1511
주안내과의원	033–263–1500
중앙재활의학과의원	033–254–7555
참가정의원	033–244–7582
참조은의원	033–263–5770
최병기재활의학과의원	033–256–5559
춘천새윤요양병원	033–264–3100
춘천시노인전문병원	033–240–7500
춘천예현병원	033–264–9885
춘천요양병원	033–260–7200
춘천우리마취통증의학과의원	033–241–6955
춘천호반요양병원	033–251–9911
춘천호수요양병원	033–251–2795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033–260–0800
한국종합의원	033–253–3030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033–240–5000
한마음소아청소년과의원	033–241–3667
한마음연합의원	033–243–7550
한세의원	033–254–4939
햇살따뜻한의원	033–242–2553
허남현내과의원	033–263–5010
현대연합의원	033–243–7585
현대의원	033–242–2231
혜성의원	033–242–6401
홍내과의원	033–244–7722
효자한림의원	033–242–7581
후평성심의원	033–256–3638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우리 모두가 관심을"

- 배려와 양보가 어르신 교통사고를 줄인다 -



고령자의 특성을 보면 젊은 사람에 비하여 시력(20~50%), 청력(30%), 판단력에서 거리판단 오차율이 2배 많으며, 민첩성(20%), 순발력(32%), 치밀성 (45%), 지구력(14%), 악력(18%)이 저하된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피해가 크다.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 자동차 운전자는

- ➪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횡단 종료 시까지 정차하자.
- ➪ 어르신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폐지수집 리어카를 발견하면 서행하며 비상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고 서행 또는 정차하자.
- ➪ 자동차 뒷 유리창에 "어르신 운전중" 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면 경음기를 울리지 말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을 하자.

○ 어르신이 보행 중에는

-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말자.
- ➪ 야간·새벽시간대 보행시 밝은색 옷을 착용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자.
- ➪ 폐지수집 리어카는 가장자리 차선으로 다니고, 횡단보도로 건너자.
- ➪ 장애인용 전동의자차나 자전거를 탈 때 역주행, 대각선 운행을 하지 말자.

➡ 금년도 8월말 기준 보행자 사망사고 10건 중 70%(7명)가 어르신 사망사고 임.

"학교 앞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 30km 속도운행 YES, 신호위반 · 불법 주정차 NO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 ➪ 첫째 속도는 30km 이내로 운행하며 신호위반 및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 ➪ 둘째 교통신호등은 물론 경찰과 녹색어머니의 수신호에 따라 운행한다.
- ➪ 셋째 앞지르기를 삼가고 차선을 준수 운행한다.
- ➪ 넷째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멈춘다.
- ➪ 다섯째 경음기(크락션)는 사용하지 않는다.
- ➪ 여섯째 커브와 골목길에서는 서행 운행한다.



○ 어린이보호구역內 법규위반시 처벌규정

위 반 행 위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주·정차 위반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13만원	16만원	12만원	15만원	8만원	10만원	-	-
	40초과~60이하	10만원	13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8만원	-	-
	20초과~40이하	7만원	10만원	6만원	9만원	4만원	6만원	-	-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	-
신호·지시위반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만원	13만원	6만원	12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일반도로	5만원	9만원	4만원	8만원	3만원	6만원	2만원	4만원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245-0871

GANGWON FOOTBALL CLUB
강원FC

10월,
아챔으로가는길
춘 천 에 서
함께하자



IN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

*아챔 -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대회)

강원도 | High1 하이원리조트 | 춘천시